



광역일보

KB 국민은행
대구국가산업단지지점 개점
 달성2차산업단지 입구 웰빙온천 1층
 상담전화 : ☎ 053-617-3371

1996년 7월 11일 창간 제 3137호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 257-0000

대구 경북
www.dgy.co.kr

오늘의 날씨 대구 -4~4℃ 경북 -5~2℃ 단기 4348년(음력 11월 18일)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사랑 담은 빵 27일 오후 대구 중구 신라요리학원에서 중구청 공무원들이 지역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사랑의 빵을 만들고 있다.

대구 시민불편 제보 5년간 100만건 넘어

행정 시민 불편사항 너무 많다

대구시는 소속 공무원이 시민 불편사항 등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구시 감사관실로 제보한 사항이 2011년부터 5년간 100만건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공무원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느끼는 각종 시민불편과 안전 위해 요소, 불합리한 행정 등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부서를 통해 개선을 요구 할 수 있는 창구로 '견문정보'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견문정보'를 통해 일상생활 과정에서 대구시정에 대해 제보하면 대구시 감사관실은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토록 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제보한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 미루기와 같은 불합리한 업무 처리에서부터 소극적인 업무처리, 각종 시설물 방

치와 안전시설물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 위해 요소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제보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근 다양한 형태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대구시는 '견문정보'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자 매년 참여율과 우수시책, 시민 만족도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을 포상하고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내년에 견문정보 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면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견문정보'와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두드리소'가 대구시정 개선의 양대 창구가 되어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 만족은 더욱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김항곤 성주군수, 폐기물 공약은 헛공약?

성주읍민들 "삼산리 폐기물매립장 관리대책 후보시절 발언과 당선 후 성주군 행정 너무 다르다"고 증언

김항곤 성주군수의 군수 후보시절 삼산리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한 안전관리대책, 합동 점검반, 명예 감시관제 등 공약들이 공(空)으로 밝혀져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후보시절 보도자료를 통해 폐기물 처리장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조해 반입되는 폐기물은 차량 적재부터 철저한 검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폐기물만 안전하게 포장해 반입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수 시에도 전문 인력을 배치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 했다.

또한 "대구 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에어돔, 차수벽, 침출수 배출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환경단체 회의로 명예 감시관제를 운영해 수시 감시활동을 펼치고 전국에서 견학을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폐기물 처리장 허가시 군수와 의원들이 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폐기물 처리장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수조건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대구 지방환경청장의 권한이어서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성주읍민들은 삼산리 폐기물매립장 관리대책이 후보시절 발언과 당선 후 성주군의 행정이 너무나 다르다고 증언 했다.

성주읍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폐기물 운반 차량이 적재할 덮개없이 운행하거나 땅사로 덮혀 있어 도로상에 폐기물을 흘리며 운행되고 있다고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성주군 환경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수집·운반기준을 회신하며 위법사항이 없다"고 만 답변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12월 2일 주민들이 (주)지엠 이엔씨에서 우수관로로 배출하는 배제수를 검사한 결과 온도가 20℃인 원인과 망간, 폐놀, 과망간산칼륨 등이 기준이상으로 검출되는 이유를 요구하자 성주군 환경과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는 수집업 운영 시 시험기준에 따라 채취해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사업자들이 임의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 관로에 흐르는 물을 임의로 채수한 시료는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로 회신하고 군에서 발표한 자료는 수돗물보다 깨끗한 결과를 발표 한다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주민의 관심사인 환경청 개입 여부에 대해서 환경청 관계자는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시 환경부가 개입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지정폐기물장 허가는 필수조건이 아니다"며 "이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승인기관에서 검토할 사안이다", "산업단지 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의 변경은 환경청 협의 대상도 아니다" 했는데도 성주군수는 인정도 하지 않고 사실을 아작까지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성주읍민 L씨는 "금품수수에 대한 소문이 많지만 아직은 발원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대구지방 환경청을 향한 방문했지만 "매립장 영업을 못하게 한다"며 업주측 편을 들었다고 증언하며 어디다 진정해야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지 성주군과 대구지방 환경청을 짜짜아 비난했다.

범군민 지정폐기물 비대위족은 "김항곤 성주군수는 성주군의 수장이다. '김항곤 성주호'가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군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한 성주군수와 성주군은 군민에게 사과하고 관계자들을 처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관철 될 때까지 항의 집회는 계속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획팀서팀

백두대간 지리산 반달곰 월악산 산양이 만납니다

추풍령 생태축 복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광복7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백두대간의 핵심구간인 추풍령의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복원하는 추풍령은 그 중에서도 단절이 가장 심각했다.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4개의 도로와 철도(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국도 4호선, 군도 27호선)로 야생동물의 이동이 단절돼 있다. 이 때문에 로드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2010년 10월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 등을 통해 추풍령 생태축 복원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4개 도로별로 관리주체가 달라 본격적인 생태축 연결 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생태축 복원은 폭 50m의 생태통로 3개를 설치해 야생동물이 백두대간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리산 반달곰과 월악산 산양이 만날 수 있게 된다.

최규목 기자

바로잡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자 본지 4면 '도시철도 3호선 교각 균열... 위험' 기사와 관련, 당시 교각의 문제점을 문의한 담당자는 건축구조연구소 편해안 대표가 아닌 해당업체 직원으로 편해안 대표가 설명한 내용이 아니므로 바로 잡습니다.

대구·경북 유일 기초단체장 보선, 달서구 '후끈'

새누리당 공천경쟁 출사표 준비 중인 인사 전·현직 시·구의원, 공무원등 9명 야당에서도 출마인사 많아



내년 4월13일 실시될 제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구 달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현직 구청장의 총선 출마에 따른 중도사퇴와 출마 예정자들의 각축전으로 벌써부터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달서구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있으며, 대구 인구의 30%가 넘는 61만명이 거주하면서 3곳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둔 거대 자치구다.

예비후보 후보 등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새누리당 공천경쟁에 출사표를 던졌거나 준비 중인 인사는 전·현직 시·구의원, 공무원 등 9명에 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도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어 후보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6일 박상태(56) 시의원과 22일 김원규(56) 시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23일 도영환(58) 전 달서구의회 의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또 도이환(57) 전 대구시의회 의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명예퇴직한 이태훈(59) 전 달서구 부구청장도 선거사무실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출마선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강재형(64) 대구시 달구벌 종합복지관장과 김재관(57) 대구시의원, 이관석(57)

전 달서구청 공무원, 이진근(61) 전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도 출마의사를 밝혔거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이 넘쳐나면서 일부 후보들은 보선과 함께 총선을 치러야 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특명을 받았거나 지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응해 내년 총선 출마자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번 달서구청장 보선은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앙당이 직접 경선을 통한 공천관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최우희 기자

아주 20분 1년 12월 책임지기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책의 힘”

세상을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독서는 다양한 상상력과 잠재적인 창의력을 키워주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해주며
 나를 반성하고 타인을 돌아볼수 있는 가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열어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일, 12차 국장급 협의 개시...“청구권 협정 입장 불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를 위한 제 12차 한일 국장급 협의회가 27일 오후 3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 2시59분께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회의실로 이동했다. 한국 수석대표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이 나서 이시카네 국장과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국장급 협의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두 나라가 ‘책임’과 ‘배상’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덮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유효하다고 본다.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해당 하는 사안으로,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소녀상까지 의제로 끌어들이며 한국 정부와 신경전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이 “위안부 소녀상이 남산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보도하자 한국 정부가 “협상에 임하는 일본 측 자세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고 공식적으로 항의 하는 등 예민한 모습이다.

일부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한일 두 나라가 10억엔(약 97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고 총리가 사죄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합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두 나라의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부장은 이날 국장급 협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외교장관 회담과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靑, 쟁점법안 공회전 처리 난망에 ‘답답’

오늘 차대통령 발언 주목

청와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삼은 쟁점법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답답해 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어 답답하다”며 “국회가 경제와 민생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등은 지난 26일 오후 7시간 동안 쟁점법안 타결을 위한 릴레이 회동을 벌였지만 평범한 입장차 만을 확인했다. 서비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노동5법 등 대부분의 쟁점법안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이어 여야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선거구 확정과 쟁점법안 막판 타결을 위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회

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번 릴레이 협상에서도 점점 찾기에 실패했던 것처럼 주요 쟁점법안에서 여야간 이견차가 커 극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역시 이날 회동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선거구 확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되서는 안되며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해서도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을 먼저 처리하지는 야당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따라서 남은 여야 협상에서도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채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연내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일 이날 2+2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다면 박 대통령은 오는 28일 예정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국회 압박을 위한 여론전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안 처리를 미루듯 국회에 향해 총선 심판론을 제기하며 강공을 이어가던 박 대

통령은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안통과를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지금 듣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등 감정을 자극하는 ‘호소’로 공세수위를 조절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왔던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 무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회를 향한 박 대통령의 비판은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정 의장에게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제차 요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정 의장을 만나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도 공직선거법과 함께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 의장은 현재 상황이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같은 요청을 거부한 상태지만 청와대는 여야 협상이 실패할 경우 직권상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정 의장의 결단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뉴시스



안철수 “신당, 30-40대 영입 문턱 낮추겠다”

신당 창당을 진행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7일 ‘낮은 정치 타파’를 주장하며 30, 40대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정치와 국정의 새로운 중심이 돼야 한다”며 “30, 40대 우리 사회의 허리가 정치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 주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안 의원의 일문일답. -지난해 2월 ‘새정치 플랜’을 발표할 때 ‘낮은 정치구조 개혁’ 기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큰 방향은 바뀐 점이 없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고 많은 정치현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실제로 (낮은 정치구조 개혁) 실현이 가능한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다. 더 구체화된 안들을 앞으로도 계속 내놓겠다.” -어떤 청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할 것인가. “여러 경로를 만들겠다.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참여하지 못한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침묵하는 다수로 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선보이겠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형 목소리를 열심히 들겠다. 개인적으로 국회에 등원한 이후로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정말로 많은 도움 받았다. 그걸 좀 더 체계화된 형태로 (만들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 -30, 40대를 국회로 들여보내고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30, 40대는 사회에 나와서 일한지 10년정도 경과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일한 곳에서 일정한 평판과 성과가 있다. 이미 그 분야에선 검증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인정 받더라도 기성정치의 벽이 워낙 높았다. 많은 사람들 통해 소개받지 않으면 도저히 진입 불가능한 그런 구조였다. 그런 구조를 새로운 정당은 깨겠다. 정당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영입할 수 있을지, 문턱을 낮출 수 있을지 구체적 방법들을 하나씩 선보이겠다.” -시대적 과제로서 격차해소의 방법론을 설명해 달라. “60년 전엔 가난이라는 시대과제를 산업화로 풀었다. 그 다음엔 자유라는 시대과제를 민주화로 풀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시대과제는 격차해소와 통일이다. 격차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다. 빈부뿐 아니라 세대, 남녀,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 분야에서의 격차가 다른 분야에서의 격차를 훨씬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에 빠진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그런 실타래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답으로 공정성장론을 오랜 기간 말씀드렸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 길로 가는 데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방법론들을 경제문제 중심으로 공성장론에 담으려고 말씀드리겠다” 뉴시스

野 텃밭 광주지역 국회의원 추가 탈당에 촉각

광주 붕괴 ‘초읽기’... 탈당 러시 예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 텃밭이 반쪽이 된 가운데 추가 탈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김동철(광주 광산갑)의원에 이어 23일 임내현(광주북구을)의원이 탈당하면서 새정치연합 텃밭 광주의 붕괴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전망과 함께 탈당 러시를 예고했다. 두 의원 탈당으로 광주 지역구 의원 8명 가운데 천정배·박주선·김동철·임내현 의원 등 4명은 무소속, 박해자·장병만·권은희·강기정 의원 등 4명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남게돼 새정치연합 텃밭이 반쪽이 됐다. 그동안 강기정 의원을 빼고 나머지 3명의 의원을 여론수렴을 거쳐 조만간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외로 탈당 정국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3명의 의원 중 가장 먼저 탈당이 예견됐던 권은희 의원은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당초 “24일까지 의정보고회와 민심 탐방 이후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혀 탈당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다. 더욱이 탈당 후 안철수신당쪽으로 합류가 점쳐졌던 권 의원은 지난 24일 가칭 국회의회의 창당을 추진중인 천정배 의원과 만나 지역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권 의원은 천 의원측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속에 “천 의원이 처음 야권개혁, 정치개혁, 새정치연합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한 국민의 지점과 제가 그리고 제 지역이 고민하는 지점들이 서로 정확하게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런 부분(야권개혁)에 대한 큰 요구, 큰 변화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얘기를 했다”



며 “아직(합류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탈당의) 시기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시기에 관해서도 지역민보다 더 먼저 ‘이럴 것 같다’라고 제 생각이 앞설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탈당 시기가 신당 선택 등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면서 최종 입장 정리도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오는 30일까지 의정보고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박해자 의원 역시 연말내 거취 표명은 없다. 박 의원은 “연말내 결단을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연말내 (탈당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만 의원은 “지역의 당직자 등이 9대1 정도로 탈당을 해야 한다. 그것도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신중하게 고민중이다”면서도 “당장에 거취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

다”고 말했다. 탈당설이 돌고 있는 박 의원과 장 의원이 지난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표의 (우선 사퇴) 결단을 재촉한 것도 아직까지 고민이 깊다는 것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광주에서 탈당 사태를 막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는 길은 문재인 대표의 (우선 사퇴)결단뿐”이라며 “문 대표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광주 민심을 즉각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 길만이 새정치민주연합도 살고 문재인 대표도 사는 생로(서로 사는 길)”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광주는 이미 탈당 대세가 확인된 만큼 누가 추가적으로 탈당을 하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안철수위원과 새정치연합 비주류, 안철수신당과 호남 신당파간 큰 구도에 따라 수도권 의원들을 포함해 추가 탈당 등이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시스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달성 예비후보 확산도 지지

(사)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는 지난 24일 광산도 새누리당 달성군 예비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사)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회원 20여명은, 광산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법률전문가인 광산도 예비후보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염원을 이취할 수 있는 후보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지지선언 이유를 밝혔다. 광연도 회장 및 협회 회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는 목적의 특별조치법으로서, 입법목적에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 처음 지정된 1971년 상황과 45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매우 다르다”고 강조하고 “지난 45년



동안 재산권 침해로 고통을 받아온 그린벨트 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산도 예비후보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김정재 예비후보... 성탄 연휴 봉사활동 펼쳐

김정재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 포항 남·울릉)는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등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제20대 총선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바쁜 행보를 보이는 김 예비후보는 포항시 남구 오전 읍에 위치한 오천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 예비후보는 “정치는 봉사며 나눔이라고 생각한다”며, “봉사의 정신처럼 분열된 사회를 화합과 통합으로 만드는 진정한 정치인이 포항의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낯은 자제로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포항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며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한편 김정재 예비후보는 사랑의 교회 떡국 나누기 행사에 이어 경동교회에서 주최한 ‘호떡꾸기 행사’에 참여해 손수 호떡을 구워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훈훈한 활동을 이어갔다. 권혁동 기자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 ‘대구 북구갑→경북’ 출마지역 U턴

내년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 출마를 선언했던 전광삼(44)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돌연 선거구를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으로 바꾼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구 북갑에서는 출마를 준비하던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최근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지난 25일 전 관장은 “국민 배신, 대통령 배신 등 정치적 도의에 있어서의 배신만이 배신 아니다”며 “지역구를 버리고 간 것도 배신이라는 울타리, 영덕 주민들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얘기를 했다”

종 결심했다”고 밝혔다. 전 전 관장은 경북 울진 출신으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영양·영덕·봉화·울진에 출마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 이동이 대구지역 친박(親朴·친 박근혜)의 새판짜기 신호탄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는 팔판의 말일 뿐이다”며 “정치는 생물이자. 정치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고 무슨일이 어떻게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은 표를 먹고사는 표식동물이

다”며 “영양·영덕·봉화·울진에서 국민이 힘든 것이 무엇인지,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발로 뛰었다. 오로지 국민 위한 순수성과 나쁜 짓 안하겠다는 진정성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갑을 떠나지만 그동안 시민들이 보내주신 과분한 관심과 성원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오는 28일경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새누리당 강석호(60)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유현 기자



광역시도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3

“의성군 ‘의로운 쌀’ 우수품질 전국에 알리다”

2015 고품질 브랜드 쌀 12대 우수브랜드 선정 동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평가한 2015년도 고품질 브랜드 쌀 12대 우수브랜드 선정에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의로운 쌀’이 동상을 수상했다.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사업은 2003년부터 우리 쌀의 고

품질 브랜드화를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올해로 13번째 추진해 오고 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를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각 시·도로부터 매출액이 40억원 이상 브랜드 쌀을 추천받고 이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전문기관의 품위평가, 식미평가 및 소비자 식미평가 등 항목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했다.

‘의로운 쌀’은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일품벼로 농약과

화학비료를 줄이는 대신 유기질비료를 사용해 계약재배하고, 설이 오기 전에 수확, 산물벼 수매로 저온저장시설에 구분 보관함으로써 연중 햅쌀 같은 밥맛으로 공급되는 의성군 공동브랜드 쌀이다.

박재성 기자



2016년도 문화관광축제 ‘경북의 5개 축제’ 선정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 ‘최우수’
고령 대가야제협축제, 봉화 은어축제 ‘우수’
포항 국제불빛축제, 영덕 대게축제 ‘유망축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16년도 문화관광축제에 경북도의 5개 축제가 선정됐다.

문체부는 ‘문화관광축제’ 선정 심의 결과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를 최우수로, 고령 대가야제협축제와 봉화 은어축제를 우수 축제, 포항 국제불빛축제와 영덕 대게축제를 유망축제로 각각 선정했다.

경북도의 문화관광축제는 먼저 5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9일간 문경시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문경사기장의 하루체험을 비롯해 도예작가 등용문인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과 전국 유일의 전통발물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방문객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자기 빚기, 찻사발 과거시험, 어린이 도공전, 도자기 소원쓰기, 다례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우수 축제로 선정된 고령 대가야제협축제는 내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고령군 고령 대가야박물관 및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에서 개최된다.

이 축제는 지역에 숨겨진 대가야의 역사적 소재를 축제를 통해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형 체험프로그램으로 ‘대가야의 진군 퍼레이드’를 비롯해 대가야 용사 선발대회, 가야금체험, 대가야국 무예체험, 대가야 토기제작, 금관제작, 대가야 생활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개최된다.

또 봉화 은어축제는 내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8일간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 축제는 낙동강 최상류지에 위치한 청정봉화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체험형 여름축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은어잡이 체험행사를 비롯해 은어구이체험, 물장난 페스티벌, 은어 종이배 공모전, 내성천 워터위, 수상 자전거 체험, 은어 선동 만들기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유망축제로 선정된 포항 국제 불빛 축제는 내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포항의 5대 불빛을 테마로 여름 피서철 동해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이 축제는 국제 불빛 경연대회를 비롯해 Daily뮤직불꽃쇼, 불꽃퍼레이드, 불꽃낭만라이브공연과 함

께 포함 5대 불빛찾기, 불꽃주역 만들기, 불꽃 키즈 놀이터, 불꽃민속마당, 불빛에너지 체험 등 다양한 메인행사와 함께 포항문화 해상투어, 영일대 해변 스포츠 축제 등 연계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유망축제로 처음 선정된 영덕 대게축제는 내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영덕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19회를 맞이하는 이 축제에서는 ‘영덕대게 달리기’를 비롯해 서기 931년 태조 왕건이 예주지역을 행차한 모습을 재현한 태조 왕건 행차와 영덕 대게 5대 체험, 영덕대게 요리 경연대회, 주제극 천년의 맛 영덕대게 등으로 개최된다.

한편 ‘문화관광축제’는 전국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지역 축제 중에서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문화체육

관광부가 인증하는 관광브랜드다.

경북도는 문화관광축제 등 5개 축제가 선정됨에 따라 도내 우수관광자원과 축제, 음식점, 숙박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코스 및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홍보 판촉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많은 외국인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전환식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도는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운영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축제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2016 하천 수질개선사업 중점 추진

경북도, 깨끗한 수질관리 생태 하천복원사업 등 699억원 투입

경북도는 내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수질개선 사업에 총 699억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2016년도 추진할 수질관리 주요사업은 △생태하천복원사업-14개 시·군(18개 하천), 384억원 △비점오염원저감사업-3개 시·군(4개소), 80억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10개 시·군(11개소), 231억원 △하천쓰레기정화사업-4개시군(4개소), 4억원 등이다.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내용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생활하수 등 각종 오염원의 유입으로 자정능력이 저하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바닥 준설, 수생식물 식재, 어육·소·이도 설치 등을 통한 생명이 살아있는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점오염원저감사업은 도시지역·산지·공사장·농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인공습지, 생태유수지 등을 설치해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산업·농공단지 입주하는 소규모 기업에서 일정규모 미만 배출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는 시설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하천쓰레기정화사업은 여름철 장마철에 하천 중·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내 수질개선 및 지역 환경오염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질관리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하천 주변지역과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강화 등 수질관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정부3.0 찾아가는 홍보활동’ 펼쳐

대구 동성로서 대학서포터즈 단원들과 민·관 합동으로 펼쳐



경북도가 성탄절을 맞아 ‘정부 3.0에 대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27일 도는 성탄절을 맞아 지난 24일 도청 직원들과 정부 3.0 대학서포터즈단원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정부 3.0 찾아가는 홍보활동반’을 구성하고 대구 동성로에서 정부 3.0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 속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주요 활동상황으로는 도와 시·군에서 추진한 주요 우수사례 30선을 설명한 ‘나토리텔링 책자’와 각종 홍보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국민이 행복한 정부 3.0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당부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날 소개된 우수 사업들은 △도시의 유류인력과 농촌의 일감을 연결해주는 ‘스마트 공동두레사업’, △건강 100세를 추구하는 ‘행복한 우리 마을 건강3.0’, △민관이 협업으로 추진하는 ‘농공단지희망사다리’사업 등으로 정부 선도과제로도 선정된 사업들이다.

한편 이날 찾아가는 홍보활동은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정부 3.0 마스코트인 ‘삼이’, ‘짬이’, ‘영이’도 함께 했는데,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3.0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는 것인 만큼 앞으로 도에서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가치들이 국민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사랑한다면, 금연하세요

금연 약속, 올해는 꼭 지키세요!

금연 하나 했을 뿐인데 당신은 건강해지고, 가족은 더 행복해집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p>금연치료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연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연간 1000원 이하의 금연료 지원 	<p>금연치료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주에서 12주 동안 1:1 코칭을 통한 금연·상담 지원 1:1 코칭·상담·금연치료비용 부담비용 80% 지원 금연치료 12주 이상 지속 시 100% 지원
<p>금연치료 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연료 지원 대상 의료기관별 - 의료·보건소, 보건지소 금연료 지원기관 명칭은 금연 홈페이지 (http://www.mh.or.kr)에서 확인 가능 	<p>인센티브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연료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본인인정금, 건강검진 비용 지원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사회

광역시도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4

구세군 냄비를 사랑으로 데운 '롯데백화점'

롯데백 대구점 임직원들
자발적 불우이웃성금 기탁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지난 24일 대구역 지하

1층에 위치한 구세군 자선냄비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불우 이웃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백화점 직원들이 지난 23일 일일 카페와 사랑의 바자회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한편 대구점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사나사)' 봉사단은 지난 23일 북구 칠성동에 자리한 굿네이버스 하늘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지어온 소외 계층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맞이 케이크와 음료 등의 연말 선물을 전달했다. 지우현 기자



경북도, 중소기업 살리기에 집중한다

도내 2만여개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1조4000억원 지원

경북도는 내년도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도내 2만여 개 업체에 1조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자금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1300억원, 긴급경영안정 운전자금 8004억원, 벤처육성자금 3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300억원, 신용보증을 통한 지원 4500억원 등이다. 내년도 정책자금의 총규모는 1조4139억원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여조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1조 3539억원)보다 600억원 증액됐다.

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창업기업 지원 범위 확대, 우대업종 추가, 대출취급은행 확대,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해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서민층의 경영안정 자금여조 해소에 중점을 뒀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기업지원 범위를 5년에서 7년 이하로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은 창업 시기에 관계없이 개별 기업 당 연간 11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한다. 또한 도 주력산업 위주로 미래성장잠재력을 반영해 제조업체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기수혜기업에 대한 감점기준을 없애 대출기준을 완화하며, 성과분석을 통해 사후관리 기능을 보완한다. 운전자금은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올해보다 400억원 증액한 8004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유치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해 미분양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한 고용창출을 유도한다. 소상공인육성지원으로는 취급은행을 현행 5개 은행에서 8개 은행으로 확대, 대출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또 신용보증 확대를 통해 융자규모를 올해보다 500억원 증액한 4500억원 규모로 보증공급을 확대해 적기에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경기 경북도 기업노사지원과장은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화성산업 화성자원봉사단 연탄나눔 봉사활동 펼쳐

화성산업 화성자원봉사단은 26일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에 연탄 4000장을 기증했다.

봉사단은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거주하는 불우이웃에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우현 기자

건보공단,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선정

종합청렴도 8.80점 받아 매우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27일 국

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건보공단이 종합청렴도 8.80점을 받아 매우우수기관(1등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공단은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는 지난해 8.87(2등급)보다 0.26점 상승한 9.13점을 받고,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도 지난해 8.68(2등급)보다 0.02점이 상승한 8.70점을 받는 등 조직 내·외의 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매우우수기관(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건보공단 대구본부에 따르면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교류를 통해 공단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속

적으로 청취, 이를 적극 개선했다. 또 대내적으로는 지사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중심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도록 '찾아가는 청렴건설팀'을 확대 실시했다. 아울러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청렴감찰제를 강화했으며, 올해 제정된 '정탁금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단의 형사고발기준을 강화했다. 대구지역본부도 관할 전지사에 대한 청렴·행동강령 업무 실태 점검을 비롯해 청렴건설팀 자가진단, 청렴몰 운영, 청렴실천 MOU협약 체결, 청렴실천 대국민 캠페인 등 적극적인 청렴도 향상노력으로 공단이 매우우수기관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태형 본부장은 "공단 최초로 청렴도 1등급인 매우우수기관에 선정돼 기쁘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깨끗하고 청렴한 공단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함께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기자

영주시의회, 병역명분가 예우·지원 관련 조례 제정

27일 대구경북지방방무청은 영주시가 '병역명분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3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분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병역명분가 가족이 영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입장·주차·수강료 등을 감면 받는 것과 함께 병역명분가의 홍보와 예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4년도 병역명분가 선양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까지 대구·경북에서 총 347가문이 병역명분가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영주 출신은 10가문이다. 대구경북방무청 이은식 운영지원과장은 "영주시에서 제정한 이 조례를 통해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분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진동호회 '열린창' 전시회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호선 반월당역 환승 구간에서 지난 18일부터 공사 사내 사진동호회 회원이 2년 동안 촬영한 우수한 사진 30여점을 전시하는 '제2회 열린창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진동호회 '열린창'은 2004년 창단해, 2005년 공사 정식동호회로 등록 및 승인을 받고 현재 82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사진을 통한 취미생활을 통해 각 부서 구성원간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정기전시회, 사회봉사 등을 통해 공사 이미지를

제고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열린창'은 그동안 2번의 정기 전시회와 2회의 장수(영정)사진 촬영, 지하철 패션쇼 촬영 및 3호선 하늘열차 결혼식 촬영 지원 등 다각적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는 1호선 반월당역과 2호선 두류역에서 순회 전시 형식으로 운영된다. 흥승환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사내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내부직원과 이용고객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티스트 지향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사건·사고

대구시 도심에 멧돼지 3마리 출현 1마리 사살



대구 한 주택가에 멧돼지 3마리가 나타났다가 1마리가 경찰이 쏜 총에 의해 사살되고, 나머지 2마리는 산으로 달아났다. 2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8시18분께 대구시 동구 봉무동 대구국제 학교 사거리에서 멧돼지 3마리가 출현했다. 이에 경찰은 이 일대를 수색하던 중 주택가에 있던 멧돼지 1마리를 발견하고, 권총 6발을 쏘 죽였다. 또 나머지 멧돼지 2마리는 인근 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살된 멧돼지는 동구청에 인계했다"며 "달아난 멧돼지로 인해 불안해 있을 주민들을 위 인근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음주 삼진아웃' 비판해 목숨 끊으려다 차만 태운 50대 입건

음주운전 단속에 세번걸리자 이를 비판해 자신의 차에서 착화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차만 불에 태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50분께 대구시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뒤편 자동차극장 앞 주차장에서 A(56)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불은 A씨의 차를 전소시켜 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낸 뒤 10여분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세번걸리자 이를 비판, 조수석에 착화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차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우현 기자

영덕 한 식당서 60대女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영덕군의 한 식당에서 식당주인 A(66·여)씨

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영덕경찰서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23분께 영덕군 영덕읍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식당 안에 있던 연탄난로 옆에 엎어진 모습이었으며, 얼굴과 가슴 부위에 탄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영덕소방서는 이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지만 화재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승건 기자

대구서 변압기 교체중 40대 근로자 감전사

27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북구 노원동의 한 공장 안에서 지상 5m 위에 있는 변압기를 교체하던 외부업체 근로자 강모(45)씨가 감전돼 숨졌다. 사고 당시 변압기에는 2만2000V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우현 기자

구미서 아파트 화재 주민 29명 연기흡입

27일 낮 12시50분께 경북 구미시 봉곡동 A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 5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구미소방서는 불이 나자 소방차 24대와 80여 명의 인력을 투입, 이날 오후 2시께 화재를 진압했다.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과정에서 29명이 연기를 마셔 순천향구미병원과 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 모두 귀가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특정 가구의 거실 콘센트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은진 기자



"안전한 공중 치안 펼치겠다"

경북청 항공대, 14인승 중형헬기 KUH-1P 도입

경북지방경찰청 항공대는 14인승 중형헬기 KUH-1P(참수리)를 신규 도입해 경북도민을 위한 보다 수준 높은 공중 치안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참수리 헬기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해 2013년 12월부터 경기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서 각 각 1대씩 도입해 운영 중이며 지난해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 수색에도 큰 성과를 발휘했다. 특히 이 헬기는 최초의 국산 헬기 기종으로 2011년부터 육군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두 번

째로 경찰에서 도입한 것이다. 헬기는 자동비행 디지털 항법장치, 지상충돌 경고장치, 디지털 항법지도, 인명구조 인양기 등 최신의 전자장비 등을 탑재해 기동성과 안전성이 더욱 향상됐다. 이에 울릉도·독도 등 장거리 해상비행,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이 용이하고, 항공 카메라, 탐조등, 야간투시경 등을 이용한 주·야간 실종자 수색, 입체적 교통관리, 재해·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 보다 활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지난 75년 12월 1일 세스나 고정익 비행기 1대로 창설된 경북경찰청 항공대는 지난 1일 40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 지우현 기자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작은 임영문화제 개최

대구경북지방방무청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2일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임영장정과 가족, 친구들이 참석한 가

운데 '작은 임영문화제'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병무청장 임영격려사 대독, 군악대 연주, 군복체험, 사랑의 편지쓰기, '스크레치-보드 현장 공모전' 등의 군부대 내 추억 만들기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임영자와 가족·연인에게 사랑과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우현 기자

대구

광역시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5

중구 남구
동구 수성
북구 서구
달서 달성



강대식 동구청장은 28일 하빈면 현지에서 열리는 '하빈면 현내1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28일 구청장실에서 열리는 '롯데시네마 율하점 및 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달서구, 2015년 홀몸노인 보호사업 평가 우수 선정

달서구는 27일 보건복지부의 '2015년 홀몸노인 보호사업 평가'에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대구 1위, 전국 8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44개 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홀몸노인 보호계획과 지원, 사업수행 체계 및 운영, 사업성과 및 서비스의 질, 홀몸노인 사랑 잇기 사업 및 전산 활용, 사업평가 및 업무협력 5개 분야에 대한 서면, 현장 2차 평가로 상위 5%의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5개 분야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홀몸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2차에 걸쳐 시범 운영 함으로 홀몸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달서구는 현재 53명의 생활관리사가 홀몸노인 1400여명에 대해 주기적인 방문 및 안전 확인, 서비스연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전에 취약한 홀몸노인 및 중증장애인 359가구에 119와 연계한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지우현 기자

달성문화재단, 대구시의 중심부서 문화달성 꽃피다

2015 성악중창 페스티벌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23일 대구시민회관 그랜드콘서트홀에서 '2015 성악중창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대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5개 성악 중창단인 이칸따피, 아르스노바, 열인, 벨레스텔레, 인칸토를 초청해 격이 높은 성악 공연을 선보였으며, 1200여석을 가득매운 관객들로부터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과 무대 연출 장면 등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특히 달성군립합창단, 구미시립합창단, 코람데오 남성합창단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연합합창은 100년 달성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웅장하고 힘이 넘치는 하모니였다.

또 이날 '늘, 님은 먼곳에, 꽃밭에서'로 유명한 크로스오버 가수 조관우가 출연해, 2000년대 향수를 느끼게 하는 노래를 불러 많은 시민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음악 반주 없이 소리의 테크닉으로 재해석하는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의 공연은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김영식 기자



“신천에서 丙申年 새아침 맞으세요”

2016 신천 해맞이 축제

남구청은 희망찬 병신(丙申)년 새해 아침을 맞아 내년 1월 1일 오전 7시 상동고 밑 신

천둔지에서 '2016 신천 해맞이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해맞이 축제는 남구농악단의 풍물놀이와 경상중학교 학생들의 난타 퍼포먼스로

문을 열어 17만 구민의 염원을 담은 축문낭송과 현향의식 등으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또 신년인사와 함께 만세삼창, 희망의 남구노래 부르기 등이 이어지며 프로성과 중창단과 국악가요, 경상중학교 난타팀의 화려하고 멋진 공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남구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남구지회, 남구여성예비군 등 관내 봉사단체와 한국전력공사 대구사업본부 사회봉사단 등에서 이른 새벽 신천둔지를 찾은 주민들을 위해 새해 아침 떡국을 비롯해 따뜻한 어묵과 커피, 녹차, 음료 등을 제공한다.

지우현 기자

대구시, 공생·참여 협동도시 만든다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마련

대구시는 28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공생과 참여의 협동조합 도시' 조성을 위한 '1차 대구시 협동조합 기본계획(2016-2018)'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협동조합정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동조합 기본계획(안)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2015년 제1차 대구시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반영했으며,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장기반 조성 및 자생력 강화, 인력양성, 지역 특화, 연대·협력 등 4대 핵심전략 분야에 대한 16개 세부과제의 실천으로 2018년까지

조합원 1만명 시대에 돌입하고, 아울러 지역경제발전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특성화 협동조합 35개를 발굴·육성하는 등 대구가 '공생과 참여의 협동조합 도시'로 도약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실천과제로는 성장기반 조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규모와 위한 신규설립 확대, 제도적 개선을 통한 시장진입의 긍정성 확보,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의 참여 활성화, 자급에 대한 접근성 제고,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협동조합 성장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확대 및 인력유입 활성화를 위해 대 시민 교육 및 전문인력을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의제 발굴 및 소셜미션 발굴단 운

영, 특성화 모델 발굴 및 육성, 모범기업 육성, 사회적협동조합 성장모델 발굴 및 육성, 사회적 경제마을 육성사업 등 지역문제 해소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협동조합간 협업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원기관, 협의회·연합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대구경북 상생협력 모델 발굴·육성 등 연대·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다.

대구시 최삼봉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제1차 대구시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되, 사업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기자



중구청 간부공무원 “사랑의 빵 만들기에 나섰다”

지역아동센터, 관내 경로당에 전달

중구청은 지난 24일 윤순영 중구청장과 간부공무원들이 동인동 신라요리학원에서 '사랑

의 빵'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중구청 간부공무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진행됐다.

이날 만들어진 2000여개의 빵은 윤 구청장

과 간부공무원들이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함께 직접 지역아동센터 7개소와 관내 경로당 44개소에 전달했다.

윤순영 구청장은 "이날 행사로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간부공무원들과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약처 평가 '우수기관'

개소 1년만의 쾌거 거뒀

서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소 1년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15년도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센터의 순회방문 교육과 지원실적, 등록급식소 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방문 평가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한해동안 관내 등록 어린이집 등 49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원장, 학부모 등에 대한 순회방문을 통해 위생, 영양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 급식소의 수준 향상을 도모했다.

또 특화사업으로 '부모님과 함께 체험하는 건강한 입맛 만들기'와 '전통한옥에서의 식사 예절'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체

험을 통한 교육으로 어린이의 편식 예방과 식사예절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학부모와 아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평가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됐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단체공으로 안심하고 마음놓고 급식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기자

수성구보건소, “건강한 대구 이끈다”

대구시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서 최우수기관 선정

수성구보건소가 지난 2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5년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대구광역시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대회는 시·도 교차평가로 이뤄졌으며 간호대학 교수, 예방의학과 교수 등 보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계획과 사업운영 성과, 우수사례 발표 등을 검토했다.

수성구보건소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등 12개 사업분야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게 7개 건강문제별 세부사업으로 기획해 추

진했다.

특히 주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4개 권역(중동·황곡권, 범어·만촌권, 지산·범물권, 고산권)에 주민 밀착형 통합건강증진실을 설치 운영해 만성질환 예방, 건강생활습관 실천 교육, 홍보,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요구에 맞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인 '신바람 건강아파트' 사업을 수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 11월 대구광역시 최초로 건강도시 인증을 받은 수성구는 향후 정책에 주민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건강 환경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구청, 도시환경정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서구청이 대구시가 발표한 도시환경정비 평가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구시장 표창과 상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서구는 이번 평가에서 서대구IC 진·출입로를 비롯한 주요관문 도로 및 간선도로에 대한 도시경관 개선 실적이 우수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민 실생활에 주변의 도시환경개선을 추진,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시구조물 개선에 있어 도색 대신 세척사업을 시행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타 구·군



아울러 주민조직구성과 건강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사업을 추진해 수성구지역 전체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홍영숙 보건소장은 "대구광역시 종합 최우수 기관으로 2년연속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에 귀감이 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서구는 2014년도 도시환경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15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노후차량을 대체 구입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대로변의 도시경관을 크게 개선시키기도 했다.

지우현 기자

국내유일 스페인풍 도서관 '수성구립 고산도서관' 개관



수성구는 오는 30일 오전11시 국내 유일의 스페인풍 도서관인 수성구립 고산도서관 개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식 개관하는 고산도서관은 달구벌대로650길 6(신매동) 미래어린이공원 자리에 대지면적 2080㎡ 연면적 2992㎡,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2014년 2월 공사를 착공, 올해 6월 완공했다.

수성구에 따르면 고산도서관은 지난 10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하루 평균 1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 시청각실, 문화강좌실, 동아리실, 1층 어린이·유아자료실, 2층 종합자료실, 3층 문화강좌실, 4층 사무실, 정보통신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5만여 권의 분야별 최신 장서를 확보했다.

어린이자료실의 경우 수성구립도서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주제별, 맞춤형 아동도서를 비롯해 영어원서, 연속간행물을 비치했으며 유아자료실도 별도로 마련해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도서관 이용시간은 어린이·유아자료실의 경우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합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토·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앞서 고산도서관은 대구지역 최초로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건립됐다.

공모 당시 무려 62개 나라, 859개 팀이 신청서를 내고 549개 팀이 응모작품을 제출해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당선작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설계에도 참여한 스페인의 젊은 건축가 고르카 블라스 레비라 씨의 작품이 선정돼 화이트톤의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공간으로 지어졌다.

도서관 외관은 투명 유리로 마감해 사계절의 변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고, 2층 종합자료실은 천장을 4층까지 높여 자연 채광을 실내로 끌어들이 풍부한 공간감을 제공한다.

국제현상설계를 통해 국내 유일의 스페인풍 도서관으로 건립된 고산도서관은 건립 관련 자료를 2층 로비에 상설 전시해 국내 건축학도들의 벤치마킹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성구는 수성·용학·범어도서관에 이어 네 번째 대형 공공도서관인 고산도서관까지 개관함으로써 2020년까지 4개의 대형 공공도서관, 6개의 소형 공공도서관, 다수의 개방 사립도서관을 만들겠다는 비전아래 추진중인 '4+6α 프로젝트'의 큰 밑그림을 완성하고 대구지역에서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가지게 됐다.

고산도서관은 대구 동서를 관통하는 왕복 10차로의 달구벌대로에 14개의 버스 노선과 도시철도 2호선 사월역, 신매역이 인접해 있어 지리적 여건이 매우 탁월하고 인근에 8개의 초등학교, 5개의 중학교 및 3개의 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도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개관일인 30일 오후 7시에는 어른을 위한 동화 '연탄길'의 이철환 작가 초청 강연회가 열리고 31일 오후 2시와 4시에는 초등학교 1, 2학년년을 대상으로 '자존감 향상을 위한 모래놀이' 체험학습이 진행된다. 수성구립 고산도서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053-668-1900) 또는 누리집 (<http://library.suseong.kr/gosan>)을 통해 알 수 있다.

지우현 기자

경북

광역시도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6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최양식 경주시장은 28일 오후 석하 한정식에서 열리는 '경주시 이·통장 연합회 송년회' 행사에 참석한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28일 울진소형항공 mrc 단지 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다.



화목한 가정 만들기 실천 홍보캠페인 전개

영덕군-새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영덕군과 새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회장 김영국)는 지난 15일 영해면을 시작으로 18일 강구면, 24일 영덕읍 등 군내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화목한 가정 만들기 실천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건강한 가정생활이 곧 모든 일의 근본'임을 홍보하고 효와 윤리도덕 실천운동이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 밝고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영덕읍에서 열린 캠페인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원, 공무원, 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해 어깨띠를 착용하고 다중이용 장소인 전통시장과 시내중심지를 순회하며 홍보전단지 배부하며 실천운동 홍보에 힘을 쏟는 한편,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함께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조선 중기 학자 이재(認齋) 최현(1563-1640)의 문집인 '2인재집(認齋集)'에 실린 우애잠(友愛簪)의 일부를 홍보전단지에 담아 크게 감동하는 등 화목한 가정 만들기 실천운동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김승건 기자

강구일번지 공인중개사 매물접수현영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땅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립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울진군 어르신들의 스마트한 작품발표회

울진군종합복지회관에서 지난 22일 인터넷·스마트폰 활용반 어르신들의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 이윤정 강사가 지도하는

인터넷·스마트폰 활용반의 60세에서 80세 어르신들이 갖고 닦은 재능을 발표했다.

ITQ 한글문서,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활용 등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취득한 국가

자격증과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전시하고 손수 제작한 동영상(UCC)도 전시했다.

현재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컴퓨터반은 ITQ 자격증반, 한글·파워포인트·엑셀 활용과 인터넷·스마트폰 활용반이 있으며 수강생 모집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김형삼 기자



'2020년 경주인구 30만 달성' 도전한다

정주인구 발전 전략

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경주시는 지난 23일 영상회의실에서 정주인구 발전 전략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정두락 경주교육장, 김진한 경주지구현장 장학협의회장, 김홍목 한수원 경주본사대표, 학부모 대표, 동국대학교, 지역기업체 대표자, 용역기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경주시의 인구추이

와 현황분석, 향후전망, 교육·문화 분야 등 인구유입 정주기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이번 용역은 '2020년 경주인구 30만 달성'이란 비전으로 우수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소년 인구유입, 기업유치 및 일자리 확대로 경제활동 인구 유입,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 정주환경 정비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역사·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 증대 등 5개 전략 목표로 고교평준화, 특목고 유치 등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책 등을 중점 과제로 다뤘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수한 교육기관 구축을

위해 고교 평준화, 특목고 설립, 국제고 설립과 외국인학교 설립, 기숙형 자사고 설립과 학교평가에 따른 학교 지원 차별화, 학교 교육 지원 사업, 대학교육 수준 증대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기업유치 및 특화산업 육성, 기업 인프라 구축, 경주시 이전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위해 경제산업 분야 개선노력도 제안됐다.

아울러 의료시설 확충, 멀티플렉스 등 문화시설 유치, 인구이동 모니터링, 다문화 교육

선진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 확대, 외국인 전용 결혼하기 좋은 환경 구축,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 우수업체 선정 및 서비스 마인드 제고 교육 등 윤택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도 도출됐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관광객 2000만 시대의 자긍심을 가지고 신라왕경 복원 등 역사문화 도시 조성을 근간으로 경제산업의 역점추진과 보고회에서 도출된 실현가능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2016년 새해에는 시민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30만 시민을 목표로 전 행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용찬 기자

울진군, 침체된 매실산업 활로개척 나서

농가소득안정 위해 연구용역 실시

울진군은 침체된 매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활로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진군은 매실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살리고, 지역농업인의 소득화를 위해 20년 전부터 매실 과원조성, 가공시설 설치 등 매실산업을

육성, 농가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외국산 과일이 소비시장을 잠식하고 전국적인 매실 재배면적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등으로 인해 매실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생산자의 고품질 매실 생산을 위한 과원조성과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부족, 가공상품의 개발 부재, 마케팅 미흡 등이 매

실산업 침체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울진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침체된 매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가공상품 개발로 돌과구를 마련하고자 안동과학대학교(윤혜영 교수)와의 기능성 매실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매실 상품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매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량품종갱신, 재배기술 향상, 직거래 활성화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삼 기자



포항시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자원봉사자, 내빈 등 500여명 참석

'2015 포항시 자원봉사대회'가 지난 24일 문화동 대강홀에서 자원봉사자 및 내빈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배려의 아름다움을 실천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2016년에는 11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의 역동적인 도약을 다짐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 자들에 대한 정부포상을 비롯해 자원봉사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패와 동판을 수여했다.

특히 새아름다운사회만들기봉사단중앙회 김병기 총재가 국민훈장 석류장을, 국무총리 표창에는 김상춘 씨,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에는 이찬우 씨와 박경희 씨, 도지사 표창에는 정광욱, 강영삼, 황대규 씨, 포항시장 표창에는 강순규 씨 외 29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자원봉사 우수기업으로는 대광산기, ㈜심팩메탈로이, ㈜화인텍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연간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펼친 봉사왕 28명과 금장(700-1000시간) 45명, 은장(500-700시간) 83명, 동장(300-500시간) 245명 등 총 401명이 봉사 인증메달을 수여받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자원봉사, 기부, 나눔, 복지, 사회적 기업 등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척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한다"며 "올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권혁동 기자



영덕대계축제, 2016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일몰제 폐지,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계를 갖춰

영덕대계축제가 정부가 인정하는 '2016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선정, 발표했다는데 영덕대계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됐다.

'문화관광축제'는 전국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지역축제 중에서 관광상품과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체부)가 인증하는 관광브랜드다. 대표축제 3개,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3개 등 총 43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표·최우수·우수축제의 지원기간 한도(일몰제)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유망축제는 일몰제를 폐지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김승건 기자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KORAD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방사성폐기물" KORAD가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이렇게 맑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이렇게 깨끗하면 좋겠다
현재에서 미래까지 밝고, 맑고, 깨끗하게...
코라드의 바램입니다.

방폐물로부터 사람과 자연을 보호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청정자연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겠습니다.
코라드의 약속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경북

광역시보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7

청도군청 공무원, 정치후원금 1304만원 전달

청도군 산하 공직자 142명 동참

청도군은 지난 24일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청도군 산하 공직자 142명이

자발적으로 동참, 모든 정치후원금 1304만원을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소액 다

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후원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내년 1월 14일까지 각 정당에 배분돼 정당의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에 쓰이게 된다. 강용규 기자



경산 영천 청도 칠곡 고령 성주



김영석 영천시장은 28일 오전 시청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영천시체육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한다.



곽환 고령군수는 28일 고령군청 우목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도 건축행정진실화 종합평가 경산시 기관 포상 대상 수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경북도가 주관한 '2015 건축행정진실화 종합평가'에서 기관 포상 대상(大賞)을 수상했다.

평가에서는 건축관련 민원처리 실태·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부패방지대책·건축행정 처리능력·건축행정 정보화·위반건축물 관리·수법사례 등을 고려해 건축행정의 전반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10월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린 '2015 경북도 건축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전국의 건축인 및 일반인에게 경산시의 위상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신경윤 기자

민주평통 고령군협의회 대통령단체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령군협의회가 지난 22일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15년도 국민훈장 및 의장 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령군협의회가 국민적 통일역량 결집에 앞장서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령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는 그동안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다양한 통일사업 추진을 해 왔다.

특히 통일후계 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안보교육, 안보현장견학, 역사통일 퀴즈대회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또 민주평통 고령군협의회는 고령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군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비전을 알리고 여론형성에 힘써 통일준비 역량 확충에 크게 기여해 왔다. 김양수 기자

영천시청 구내식당 잔반없애기 '일석삼조'

환경보호, 식재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

영천시청 직원들의 구내식당 잔반없애기 운동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 뿐 아니라 식재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 8월부터 시청구내식당 잔반없애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 달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해온 영천시는 운영 첫 날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일일평균 200여명 정도가 50kg에 가까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 오던 것이 잔반없애기 첫 날 부터 생선뼈와 과일 껍질 등을 제외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거의 배출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음식물 식재료비도 잔반없애기 첫 달인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간 작년대비 17%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년도 같은 달 보다 16%가 줄었고, 9월에는 24%, 10월에는 19% 11월에는 9.8%로 등으로 식재료 구입비 절감효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먹을 만큼 덜고 잔반을 남기지 않으니 당연히 식재료비가 덜 들어가는 선순환의 구조가 된 것이다.

영천시는 절감된 식재료비를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후식 제공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신선한 제철과일과



견과류 등의 제공회수를 늘리는가 하면 지난 24일에는 잔반제로화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간식(떡, 감주)을 제공해 지친 오후시간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지속적인 동참의지를 다졌다.

영천시의 잔반없애기 운동은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전 직원들의 공감대 위에 지난 7월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해 8월부터 본격 실시하게 됐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공무원 업무시스템 게시판과 각종회의 등을 통해 잔반없애기 운동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왔고, 8월부터는 '오늘의 메뉴' 판을 만들어 음식의 재료 및 맛까지 확대 안내하면서 개인의 선호도에

맞는 알맞은 배식을 유도해 잔반을 줄여왔다.

또 배식시간을 줄이기 위해 조리원들이 일괄로 떨어주던 국과 일부반찬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직접 덜어 먹는 완전자율배식으로 바꿈으로써 잔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 것도 잔반없애기에 크게 한 몫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청직원들은 잔반통 없애기에 대해 한결같이 "정말 잘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버린 음식들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낭비고 환경오염행위인지 반성하게 됐고, 지금은 먹을 만큼만 덜어 먹으니 경제적 절감효과와 더불어 환경보호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지속적인 동참의지를 밝히고 있다.

식당관계자도 "잔반 없애기 운동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어 설거지 하기가 정말 쉬워졌어요"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구내식당 잔반없애기 운동이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전 완전 정착됐다"며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잔반없애기 운동이 전국 광공서로 확대돼 나가고 민·관·기업도 적극 동참해서 모두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환경보호에 앞장 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월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구내식당 잔반줄이기 추진 운동은 영천시가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만 기자

세상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들의 손

고령군 대가야읍 내상경로당 어르신들 손 마사지 손톱을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행사 가져



고령군 대가야읍은 지난 23일 내상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손을 마사지 하고 손톱을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필요한 재료는 SNS홍보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매니큐어 등을 수집했다. 어르신들은 그동안 농사와 밭일로 인해 거칠어진 손을 매끈하게 가꾸고 네일아트를 통해 기분전환을 하며,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또 어르신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네일아트 실습도 병행해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방문해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최근 발생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 과잉홍보에 현혹 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어려운 점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참석한 어르신은 "마시지를 하며 직접 손을 만져주니 추운 겨울철에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한기동안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고 군정시책을 홍보하는 자리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손을 직접 맞대 온기를 나누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

칠곡군,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성과보고회

안정적 수익망 확보, 판로 개척 기대

칠곡군은 지난 24일 칠곡군융복합플러센티어에서 '2015년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사회적·마을기업 대표 등 17명이 참석해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된 홍보콘텐츠 제작사업에 관한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은 매년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 일반적으로 6, 7개 정도가 선정된다.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데 칠곡군은 2011년 이래로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칠곡군은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판매관 해피스토리 설립', '소셜스토리 개발', 'e-행복나눔카페 운영' 등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수익망 확보와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사업'을 추진해 12월 현재 사업을 마무리



중이다.

칠곡군은 사업성과물인 홍보캘린더(2,500부), 홍보영상(2편), 온라인시스템 개편에 있어 기업들의 의견의 반영함으로써 사업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창의적이고 파급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기업제품에 관한 정보는 'e-행복나눔카페(www.ehappycaf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홍보캘린더는 칠곡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은진 기자

문화·체육·복지 종합공간

고령의 새로운 랜드마크

대가야문화누리가

군민의 행복을 열어갑니다.

시상인내	
1등	문화복지재단
2등	고령군청
3등	고령군청
4등	고령군청

경북

광역시보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8

문경 2015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최우수상 수상

문경새재팔영사와 정보화마을(위원장 황용식)이 지난 23일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열린 2015년 정보화마을 경북지도자 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더불어 마을 지원금 1000만원

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경북도 주관으로 열린 이번 운영평가는 도내 46개 마을이 경합한 가운데 온라인 및 오프라인 특산물 판매실적과 체험프로

그램 운영실적,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 1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것으로 문경새재팔영사과마을은 2014년 우수상을 받았지만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여함으로써 4년 연속 수상을 받는 우수마을로 지정받게 됐다.



오재영 기자

구미 김천 문경 상주 군위 의성



남유진 구미시장은 2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구미시·영남대학교간 향토생활관 입사협약을 체결한다.



고환 문경시장은 28일 평천1리마을회관에서 개최되는 문경을 평천1리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28일 오전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는 '2015 상주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28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군위군의회 중무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8일 오전 의성체육관에서 열리는 희망 2016 이웃돕기 성금모금 나눔 캠페인 행사에 참석한다.

김천시의회,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 가져

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의정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철우 국회의원과 박보생 김천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 및 김천시의정회원 등 초청 내빈과 수상자 가족, 축하객 등 2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의 그간의 노력과 공로를 격려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병철 의장은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내빈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오신 오늘의 수상자들이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050억원의 2016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시정 질문, 37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2015년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최규목 기자

상복 터진 2015 의성군을 돌아보다

중앙부처·경북도·기관단체 각종 평가 대상 3개 최우수 14개 우수 19개 장려 8개 등 모두 44개 상 휩쓸어 상사업비 등 시상금 7650만원 받아

의성군은 도내 23개 시·군 중 중앙부처·경북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가장 많은 상과 사업비를 받아 축제분위기가.

군에 따르면 중앙부처·경북도·기관단체 등의 각종 평가에서 대상3개 최우수14개 우수 19개 장려 8개 등 모두 44개의 상을 휩쓸며, 상사업비 2억4000만원과 시상금 7650만원을 받았다.

군은 산자부, 농림축산산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및 국가브랜드 마블부

문 대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 2015 한국 관광산업대전 축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경북도에서 주관한 2015도정역전시책 추진 시·군평가 최우수, 투자유치대상 최우수, 저출산극복사업 자체평가 최우수, 희망이 웃돕기 성금모금 최우수, 경북도 평생교육추진시책평가 최우수, 농정업무평가 최우수 인허가대상 최우수, 경북환경상 최우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자체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됐다.

특히 김주수 군수가 '한국에 영향력 있는 CEO' 대상에 선정됐으며,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최우수 마케팅상, 한국관광산업대전 축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경북도의 공공디자인·육외광고 업무추진 유공 최우수, 저탄소생활실천운동시

책추진 최우수, 경북환경상 최우수, 물관리 우수기관 평가 우수,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우수, 산불방지 우수기관평가 우수, 읍지연습 시·군 평가 우수, 산불 지상진화경연대회 2위, 산림교육 우수기관 평가 장려, 산림행정 종합평가 장려 등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의성군은 경북도 누리집 대민서비스 최우수, 계약원가심사 운영 평가 우수, 도유재산관리 추진실적 평가 장려, 광복 70년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시책추진 우수기관 장려, 정보화마을 14년 운영 평가 우수, 통계조사 유공 포상 등을 수상해 말 그대로 상복이 터진 한해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도전과 성취, 아쉬움과 기쁨이 공존했던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2016년 병신년에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의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꽃감 사고 한우 먹으러 상주로 씩~ 씩~ 씩~



2015 상주 꽃감 한우 축제 개최 겨울철 대표 먹거리축제로 거듭나

상주시와 상주 꽃감·한우 축제추진위원회(축제추진위원장 김종현)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상주꽃감유통센터와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에서 '2015 상주 꽃감·한우축제'를 개최했다.

5회째 맞는 이번 축제는 '꽃감사고 한우 먹으러 상주로 씩~씩~'이란 슬로건으로 명품 상주 꽃감과 감먹은 삼감 한우가 어우러진 겨울철 대표 먹거리 축제로 개최됐다.

주요행사로 25일 오후 2시 상주꽃감유통센터에서 개막식과 제2회 상주 꽃감가요제 예선 개최, 26일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

에서 한우의 날 기념행사, 27일 상주꽃감유통센터에서 제2회 상주 꽃감가요제 본선과 폐막식이 개최됐다.

개막식에서는 식전행사로 사물놀이, 난타 공연, 민요합창 등으로 축제의 흥을 돋우고 본행사로 개막선언과 의식행사 및 제5회 농정대상 시상식을 한다. 식후행사로 지역가수 초청공연과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하는 상주 꽃감가요제에는 전국 및 지역에서 신청한 80여 명이 열린 경연을 벌였다.

26일 한우인의 날 기념행사가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되고, 27일에는 제2회 상주 꽃감가요제 본선과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축제가 마무리되며, 축제기간 내내 저렴한 가격에 한우가 판매됐다.

축제기간동안 꽃감생산농가와 참가업체 부

스에서는 다양한 꽃감 제품 전시와 특색있는 지역특산물을 홍보해 볼거리와 실속있는 구매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상주 꽃감 품평회, 지역가수 초청공연, 사물놀이, 풍타타령, 난타공연 등 공연행사와 상주 꽃감·한우 즉석 경매체험, 감물 천연염색 체험, 꽃감 높이 쌓기, 꽃감 씨 멀리 보내기, 추억사진 촬영 등 체험행사 및 각종 간식거리, 꽃감 마켓리 판매 등 먹거리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방문객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해 알차고 내실있는 축제구성으로, 꽃감 건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생산농가를 위로하는 등 꽃감생산농가와 축산농가의 사기진작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재영 기자

구미시민명예기자 평가보고회

230여건 기사 작성·전파



구미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구미시민명예기자(회장 정기도)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한 해의 활동성과를 평가하는 구미시민명예기자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6기 기자단의 활동영성상영, 활동성과 평가와 분석,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패와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우수기사, 수필, 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하나로 엮은 시민명예기자 문집 '구미에 사는 기쁨' 6번째 발간을 자축하고, 기자단의 활동성향과 방안모색을 위한 자유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올해 한 해 동안 다양한 취재활동을 펼쳐 시 홈페이지 '구미시뉴스'에 226건의 기사를 게재,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파했으며, 우수기사 44건과 특별 기획취재기사 11건은 구미시정소식지인 'yes구미'를 통해 생생하고 다양한 지역소식과 따뜻한 이웃의 이야기를 알렸다.

구미시민명예기자단은 2008년에 출범했으며, 지난해 1월에 2년의 임기로 위촉된 제6기 시민명예기자단은 38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시장 여러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취재를 위해 사회경제팀, 문화예술팀, 관광체육팀, 과학교육팀 등 4개 팀으로 나눠 취재활동을 하고 있다. 구미지역의 주요 시설과 시장 및 문화 현장 등을 발 빠르게 취재·전파하는 물론 축제 현장에서 시정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시정홍보대사로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은진 기자

군위군, 용대보건진료소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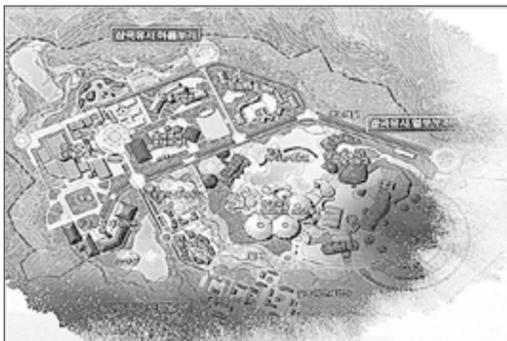
군위군은 지난 24일 용대보건진료소 신축 건물 마당에서 김영만 군수와 김윤진 군의회의장 및 의원들을 비롯한 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마을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대보건진료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이전신축사업은 용대보건진료소가 2015년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건물신축에 따른 국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새로운 의료서비스 공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최적의 의료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다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날 준공식을 마련했다.

기존의 용대보건진료소는 30년이 된 노후된 건물로 보건 업무 등을 위한 시설 전반이 노후되고 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됐으며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에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는 현실적인 건강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했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용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에 3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 6월 착공해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했다.

박재성 기자







www.gunwi.go.kr

민족역사의 중심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희망찬 전원도시!
삼국유사 가운데리 조성으로 역사·문화·관광의 1번지로 새롭게 태어나는 군위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북

광역시도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9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권영택 영양군수는 28일 영양읍사무소에서 열리는 'NH농협은행영양지부-영양교육청 도로확장 주민설명회'에 참석한다.

현서중·고, 익명의 독지가 500만원 발전기금 기탁

정송 현서중·고등학교는 지난 23일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 학교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학부모와 지역민,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이 돼 신입생 모집에 열정을 다한 결과 '2016년도 신입생'을 충원해 2016년 3월 1일자 통합학교(안동고등학교와 통합)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익명의 장학금 기탁자는 자신을 절대 밝히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역거점 명품고등학교로 새롭게 출발하는 현서중·고등학교에 큰 기대와 더불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미래 인재로 성장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는 500만원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나누어 수여하기로 결정했으며, 학생들은 이번 이 아름다운 익명자의 소중한 기탁금을 통해서 남모르게 사회에 공헌하는 큰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더 면학에 힘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창재 기자

안동시, 경북바이오2차 일반 산업단지 추가조성 추진 박차

안동시는 풍산을 매곡리 일원에 29만 9324㎡ 규모로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앞두고 행정절차 이행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2차 산업단지 대상지는 인근에 인구 10만의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고 안동에 위치한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해 가뭄에도 풍부한 수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국도34호선, 중앙고속도로, 동서4축인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나들목에 인접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여건이 형성된 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입지 여건상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마친 상태로 입주의향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7월에는 경상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지정계획 고시를 완료했다.

김용규 기자

봉화군 상운면 체육회, 정기총회·송년회 열어

봉화군 상운면 체육회(회장 안상웅)는 임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사업을 결산하는 연말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지난 23일 상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올 한해 체육회가 활동했던 제39회 봉화군민체전과 제13회 상운면민화합등반 대회, 각종 단체 지원 등에 대한 결산보고를 통해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됐다.

아울러 내년 민민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회 행사에 앞서 예산안 검토, 감사사항 점검 등 주요활동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내년도 상운면 체육회를 이끌어갈 신임 부회장(전진호, 권오기, 임운학) 및 감사위원 2명이 선출됐다.

전상기 기자



소백산자락길, 대한민국 3대 아름다운 숲길 인증

제1회 아름다운 숲길 인증평가 포럼서 인증

힐링의 고장 영주의 소백산자락길이 지난 18일 한국트레킹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사)백두대간숲연구소가 주관한 제1회 아름다운 숲길 인증평가 포럼에서 대한민국 3대 아름다운 숲길 중 하나로 인증됐다.

산림청산하 정부인가 기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사)백두대간숲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인증심사는 서류평가에서 전국의 1000여개 이상의 걷는 길 중 10곳의 숲

길을 선정한 뒤 전문평가단의 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백산자락길, DMZ편지불둘레길, 지리산둘레길 3개 숲길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아름다운 숲길 인증은 도보여행 길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곳을 선정, 관리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선정된 숲길에는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한편 소백산자락길은 영남의 진산이라 불리는 소백산자락 143km를 한 바퀴 감아도는 숲길로 모두 열 두 자락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탐방로', 2010년에는 '한국형 생태관광10대모델'에 선정됐고 2011년에는 국내 관광

부분 최고의 영예인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영주시 안상호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아름다운 숲길 인증으로 때리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소백산자락길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명실공히 영주가 선비의 정신문화와 최적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힐링하는 관광지로서 홍보하는 계기가 다시 한 번 마련됐다"며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영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힐링 만족도를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 제3차 이사회 개최



2016 예산·입장권 판매금액 결정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24일 예천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이사장 이현준)에서는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실행계획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2016년도 예산 및 입장권 판매금액을 결정했다.

입장권 판매가격은 보통권 성인 1만원, 청소년 8천원, 초등생 6000원, 미취학영유아

4000원이며 예매의 경우 성인 9000원, 청소년 7000원, 초등생 5000원, 미취학영유아 3000원으로 결정됐고 2월부터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에서 예매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예매는 3월 경 대행사 선정 후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엑스포는 곤충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선보이는 '주제전시관', 곤충관련 신기술을 집약, 곤충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곤충산업관' 등 체험 및 전시공간이 마련되며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세계 최대의 곤충박람회라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엑스포 기간 중 국제행사로서 '2016 예천세계곤충식품페스티벌'을 개최, 식품곤충을 활용한 쿠킹콘서트, 세계곤충조리대회 등 곤충식품체험관을 운영해 미래 식량자원인 곤충의 미래가치를 집중 조명해 곤충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행사기간 중에는 예천 시내를 관광하며 예천의 먹거리와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곤충열차를 운행하고,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는 곤충생태원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엑스포 조직위는 행사전문가를 영입하고 제안공모 입찰을 시행해 내년 2월 총괄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누리집(www.insect-expo.co.kr)도 이번 달 말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내년 곤충엑스포는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17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예천군에서는 12월부터 엑스포 홍보를 위해 예천군 직원이 전국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어린이 보육시설 등을 방문, 내년도 행사 참여를 당부하고 있으며 학사일정 반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원식 기자

영양 입암면, 성인문해교육 작은 발표회

영양군 입암면은 지난 23일 대천보건진료소에서 마을 교육생과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작은 발표회' 행사를 개최했다.

입암면은 지난 7월부터 한글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제2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해 왔다.

강의를 맡은 황일민 지도강사는 "20여년간 학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수강생을 가르쳤지만

이번 교육만큼 기억에 남고 감동적인 강의는 처음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5개월간 열심히 배우신 어르신들이 직접 쓴 편지 및 작품을 전시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편지 낭독 및 소감 발표 등을 듣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김영범 입암면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오늘날 성과를 이루어낸

어르신들에게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내년에도 한글교육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마을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등에서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우리나무, 소나무를 살립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건강에 도움을 주는 보약이 가득찬 숲~
숲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안동시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신고 △ 안동시 산림복지과 054-840-5365



2016년 내집마련, 나와 상의하세요

대구·경북지역 3개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우선구매를 통한 공공판로 지원



대구지방조달청은 지난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삼영이엔티의 '로터리 제진기' 등 52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우수제품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대구·경북지역 제품에는 (주)삼영이엔티(대표자 박인호)의 '로터리 제진기', 주식회사 신일라이팅(대표자 손승호)의 '모듈의 공기 유통성에 의해 성능이 향상된 LED 등기구', 주식회사 동국세라믹(대표자 노재명)의 '비연속 소성기술로 부피비중을 최소화시킨 친환경점토벽돌' 등 3개 제품이다.

이석규 대구지방조달청장은 "기술융합 신제품에 대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인종 부담을 대폭 줄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면서 "우수조달기업이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해외경쟁력을 갖춘

대구지방조달청은 지난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주)삼영이엔티의 '로터리 제진기' 등 52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우수제품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대구·경북지역 제품에는 (주)삼영이엔티(대표자 박인호)의 '로터리 제진기', 주식회사 신일라이팅(대표자 손승호)의 '모듈의 공기 유통성에 의해 성능이 향상된 LED 등기구', 주식회사 동국세라믹(대표자 노재명)의 '비연속 소성기술로 부피비중을 최소화시킨 친환경점토벽돌' 등 3개 제품이다.

이석규 대구지방조달청장은 "기술융합 신제품에 대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인종 부담을 대폭 줄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면서 "우수조달기업이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해외경쟁력을 갖춘

자유현 기자

대구백화점,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기업 선정

대구백화점은 지난 24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도로명주소 유공기업 시상식에서 지역백화점으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행정부가 지난 2014년에 기존 지번 주소가 불규칙하게 배열돼 위치를 찾기 어려워 생기는 불편함과 시간·비용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로명주소 유공 기업 선정은 기업들의 도로명주소 활용 실태를 분석해 주소 전환율, 주문접수·배송처리, 기업 업무처리 활용이 우수한 기업 16곳을 선정,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각각 시상했다.

대구백화점은 멤버십 회원 주소 정보, 우편 발송 및 배송시스템 주소 정보 등을 도로명주소로 전환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멤버십 회원 DB의 전환율은 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외부 공문 및 계약서, 대구백화점 누리집 등 회사 전반에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기업 평가는 소핑과 택배, 위치기반 등 서비스 분야별로 진행했고, 대구백화점은 소핑분야 우수기업에 선정돼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자유현 기자

DGB금융그룹 “체계적으로 바뀐다”

신사업 강화·미래 비전 수립... 조직 개편 단행

DGB금융그룹은 지난 24일 그룹 임원 인사 위촉회 및 그룹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2명을 포함한 총 12명의 임원 및 본부장(상무)의 승진인사와 DGB금융지주 및 DGB대구은행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임원인사는 그룹 시너지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경영진을 유임하고, 풍부한 현장경험과 추진력을 갖춘 인재를 중용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인사 내용으로 (주)DGB금융지주는 DGB대구은행 노성석 부행장을 신사업본부 부사장으로 신규 임용 및 상임이사로 선임했으며, DGB대구은행 김경룡 본부장을 DGB경제연구소 부사장으로 승진 임용하고, DGB대구은행 오동수 부장을 전략경영본부 상무로 승진 임용했다.

주력 자회사인 DGB대구은행은 본부장 2명의 부행장보 승진, 본부장 4명 승진 등의 인사로 8명의 부행장, 7명의 본부장 체제를 갖추게 됐다.

부행장에는 임완호(공공금융본부장), 성무용(영업지원본부장) 부행장보를 부행장으로 승진시키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문홍수 본부장, 박명훈 본부장은 부행장보로 승진시켜 각각 경영사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으로 보임했다.

이성룡(경영기획본부장) 부행장과 강영순(경북동부본부장), 장영철(마케팅본부장), 김경환(준법감시인) 부행장보는 유임되었으며, 이중 이성룡 부행장과 임완호 부행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해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꾀했다.

본부장에는 김윤희(부울경본부장), 이준걸(여신본부장), 성석기(추진본부장), 김한준(자금시장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신규 임용했으며, 양두상(정보보호최고책임자), 윤이열(미래금융본부장) 본부장은 유임시키고, DGB금융지주 흥진기 상무를 IT본부장으로 이동 배치했다.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DGB생명보험(주) 오익환 대표이사, (주)DGB캐피탈 이재영 대표이사, (주)DGB데이터시스템 이근구 대표이사는 유임되었으며, (주)DGB유펜이 대표이사에는 박동문 DGB금융지주 부사장을, (주)DGB신용정보에는 정찬우 DGB대구은행 부행장보를 신규 선임했다.

아울러 신사업 강화 및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먼저 DGB금융지주는 효율적인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해 신사업부를 별도 본부로 분리해 신사업본부로 신설했다.

주력 자회사인 DGB대구은행은 내년도 확실한 금융환경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조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정속 변화'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외형적으로는 기존 9개 사업본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큰 폭의 개편은 없었지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편이 이뤄졌다.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부행장급으로 격상하고 준법감시부서의 권한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견고히 했고, 고객자산관리(Wealth Management)를 담당하는 WM사업팀을 신설해 은퇴시장 등 신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또 본점 리모델링 등을 담당할 자산건축사업부와 2017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미래 비전 수립을 추진할 미래전략팀을 신설했다.

자유현 기자

LH대구경북지역본부 총 5개 단지 아파트 공급 무주택자 집걱정 덜어줄 것 기대



대구올하 13블록 조감도

문초등학교가 지난해 개교했고, 내년에 숙천초등학교와 혁신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기관들이 입주할 완료한 대구혁신도시는 2007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낙점된 후 첨단의료복합단지(경제자유구역)와 연구개발특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연속 중복 지정돼,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의료와 연구를 접목한 복합도시로의 성장가능성이 커 전국의 어느 혁신도시 보다 그 미래가치가 크다. 또 지하철1호선 하양연장 확정과 최근 안심연료단지 개발 및 안심창조밸리 조성계획이 가시화되면서, 혁신도시 후광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다. LH대구경북본부는 대구신서 A-7블록에 전용 51㎡, 59㎡ 822세대 10년공공임대리츠를 내년 상반기 공급할 예정이다.

범안로에서 혁신도시 진입로 인근에 위치한 올하1지구 3블록은 옴하 롯데아울렛과 1호선 올하역역 도보 5분거리에 누리며, 옴하근린공원과 초등학교, 박주영축구장, 테니스장 등이 조성된 옴하체육공원, 금호강변공원까지 도심에서 이만한 힐링주거가 없다는 찬사를 받는 역세권 쾌적주거지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확보되었고, 선수촌아파트 등 기존 옴하지구 대단지생활권을 그대로 누리며 지금 당장 가장 편리한 도심생활을 누리며, 동대구IC 범안로, 반야월로 수성구, 하양, 영천, 외곽지까지 진입이 편리하다. LH대구경북본부는 대구올하1지구 3블록 전용 74㎡, 84㎡ 234세대, 10년공공임대리츠를 내년 하반기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불안, 금융불안이 커지면서 전세자들의 고충도 함께 커지는 가운데 LH대구경북지역본부가 내년 대구 도심에 3084세대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와 전용 60㎡미만 공공분양을 공급하기로 해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끝도 모르고 올라가던 집값의 고공행진이 일단 멈춘 듯하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집값이 올해처럼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옴세가 악화될 뿐 하락세로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집값이 어느 정도 내릴까? 다시 오를까? 집을 사야할까? 팔아야 할까? 투자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무주택자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내년에 대구는 2만6845세대의 입주물량이 대기 중이다. 입주가 많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도 내려간다는 일반론에 의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지금부터가 호기가 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2016년 입주물량 중 58%를 차지하는 1만5639세대가 달성군이다. 대구 도심은 동, 서, 남, 북구, 달서구, 수성구 다 합쳐 1만1206세대 정도다. 이는 대구도심 1년 적정수요 세대수인 1만3000 ~ 1만4000세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2017년 대구시의 입주예정세대 1만5717세대 중 달성군이 13개 단지 1만687세대로 68%에 이르며, 도심은 총 5030세대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도심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추진단지가 수십 개다. 올해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곳이 36여개에 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가 6개 단지다.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특성상 멸실 세대를 동반한다.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던 거주자가 재건축 공사기간동안 인근으로 전월세를 나가 살거나, 다른 곳을 매매해 이주해야한다. 대구에 진행 중인 수십 개의 재건축, 재개발 공급 뿐 또한 전세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입주물량보다 전세자의 내집 마련이 멀어지는 더 큰 이유는 대출규제다. 최근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규주택 담보대출에는 기본적으로 비거처식, 분할상환원칙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심사에는 연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방식이 도입돼 담보대출금리 및 한도 산정 시 기타 부채의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담보가 있어도 소득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급격히 줄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무주택자가 신규분양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출규제가 전세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집값이 다소 떨어진다 해도 대출을 안고 집을 사려는 심리가 위축되어 전세나 월세 등 임차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때문이다. 이럴 경우 대출억제가 거래시장 경색을 낳고 이는 전세수요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상기 시장여건을 종합해 볼 때 당장 내 집 마련을 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안정적인 전세시장을 위한 여건도 갖추지 못한 시장상황에서 갈망질망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LH대구경북지역본부가 자산 관리하는 10년공공임대리츠의 내년 분양은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공공임대리츠사업은 국민주택기금과 LH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무주택자의 새로운 내 집 마련 톨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4월 국내 첫 공공임대리츠인 화성동탄2신도시를 시작으로 하남미사, 평택소사빌, 오산세교 등 성황리에 임대공급 했으며, 지난 7월 대구테크노폴리스 A-10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를 공급해 전용 59㎡는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 입주자모집, 임대료결정, 분양전환 등 공급 절차와 운영, 관리기준이 기존 LH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부담은 줄이고 안정성도 보장된다.

10년 공공임대리츠는 10년 동안 전세걱정, 집값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다. LH가 자금관리하는 리츠사업으로 보증금반환 걱정도 없고, 입주 후 언제든지 중도해지 및 이사가 가능하며, 10년 후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분양권을 가진다. 또 취득세, 재산세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5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분양전환 후 매도 시 양도세도 면제된다.

2016년 LH대구경북본부는 대구신서 A-7블록 전용 51㎡, 59㎡ 822세대, 대구금호 B-1블록 전용 74㎡, 84㎡ 904세대, 대구올하1지구 3블록 전용 74㎡, 84㎡ 234세대, 대구대곡2지구 S블록 전용 49㎡, 59㎡, 74㎡, 84㎡ 1,124세대 등 4개 단지 3084세대의 10년 공공임대리츠와 대구옥포 A-3블록 전용 59㎡ 655세대 공공분양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혁신도시의 중심지리에 위치한 대구신서 A-7블록은 당초 전용 84㎡ 초과단지로 계획했다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제공을 위해, 전용 60㎡미만 10년 공공임대단지로 변경됐다. 완성단계의 혁신도시는 아파트입주와 함께 학교, 공원, 상가 등 편리한 생활환경까지 갖춰 도심에서 가장 값싸고 쾌적한 신주거지로 부각돼,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형성했다. 지구내에 대구일과학교가 있으며, 새문유치원, 새

대구금호지구 B-1블록은 7000여세대 공영택지 한가운데, 한강근린공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양쪽에 거느린 최중심 자리다. 총 7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이미 입주 완료했고, 내년에 서한이다음과 LH A-2블록이 입주하며 초등학교가 이미 개교했다. 도시철도 3호선 팔달역, 와룡대교, 신천대로로 도심접근성이 뛰어나며 유치원, 초등학교2,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구내 계획돼 있다. LH대구경북본부는 대구금호 B-1블록 전용 74㎡, 84㎡ 904세대 10년공공임대리츠를 내년 상반기 공급할 예정이다.

대구대곡2지구 S블록은 총 4200여세대 달서구 마지막 공영택지의 중심자리다. 대구수목원과 산세공원, 청룡산을 내집 정원처럼 누리며, 일명 한실마을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달서구민들의 선망을 한 몸에 받는 도심 속 청정주거지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직통도로와 범물로 가는 4차순환선이 개통하면서 대구의 동서를 잇는 교통허브로 주거입지가치가 더욱 상승했다. 지구내에 유치원2개소, 초등학교1개소가 신설 예정이며, 대진중학교와 대진고등학교가 지구내에 포함된다.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공원만 10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대곡중·고등학교, 도원초·중·고등학교, 교대부설초등학교 등 선호하는 학교들이 즐비하며 지하철1호선 진전역, 상인역, 이마트 월배점, 홈플러스 상인점, 롯데백화점 상인점을 2km전후로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LH대구경북본부는 대구대곡2지구 S블록 전용 49㎡, 59㎡, 74㎡, 84㎡ 1124세대 10년공공임대리츠를 내년 하반기 공급할 예정이다.

대구옥포 A-3블록은 10년공공임대아파트가 아닌 옥포지구내 마지막 전용 60㎡미만 실속분양단지다. 달성군에 집중된 입주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화원, 옥포의 개발붐이 또 그만큼 뜨거운 상황이라 마지막 남은 전용 60㎡미만단지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다. 올해 12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옥포를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도시철도 1호선 화원 연장과 광주-대구간 고속도로의 확장 개통이다. 2005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된 이후 10년, 달성군 쪽쪽은 상전벽해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올 연말 광주-대구간 고속도로가 확장개통 되고, 내년 하반기 도시철도 1호선 화원 연장선이 운행을 시작하면, 수년내 화원은 제2의 죽곡이 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총 7600여세대의 아파트가 속속 입주하면 총 2만3000여명의 인구가 상주하는 핵심주거지가 된다. 또 2018년 화원교소도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종합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교정박물관, 미술관 등 대단위 공공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있다. LH대구경북본부는 내년 대구옥포 A-3블록 전용 59㎡ 655세대 공공분양 공급을 상반기 계획하고 있다.

LH대구경북본부 주택판매팀 공영규부장은 "부동산경기가 호황일때나 불황일때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어렵기 마련이며, 이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LH 본연의 임무다"고 말하고 "특히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집값과 금융이 모두 불안한 시대에 무주택자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주거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분양문의는 053)603-2602, 2603로 하면 된다.

김영식기자



대구금호 B1블록 조감도



대구신서 A7블록 조감도



경북교육청, 정기인사 단행

경북도교육청은 201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128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3급 2명, 4급 4명, 5급 31명 등 총 224명이 승진했다.

김동구(기획조정관), 김희철(학교지원과장) 지방서기관이 지방부이사관으로, 김창규(학교지원과), 심영수(총무과), 안희욱(행정지원과), 이은미(기획조정관) 사무관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했다.

3급 인사 주요내용으로는 김동구 기획조정관이 자체승진 했고, 김희철 학교지원과장이 경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에 임용됐다.

4급 인사 주요내용은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에 김유태, 경북도립상주도서관장에 최명대, 포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에 정광식, 경북도과학교육원 총무부장에 전덕렬, 학교지원과장에 조기경, 행정지원과장 및 재무정보과장에는 중앙교육연수원 교육과에서 복귀한 권정숙 및 정경희 지방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공보관에 김창규(승진), 중앙교육연수원 교육과에서 심영수·이은미(승진), 화랑교육원 총무부장에 안희욱(승진)이 임명됐다.

5급은 승진자 31명을 포함한 총 79명의 사무관이 임명됐으며, 올해 신규 채용 합격자 및 전직시험 합격자 468명을 포함한 6급 이하 일반직 1천192명에 대해서도 인사를 실시했다. 자유현 기자

경운대, 신입생 정시모집

경운대학교는 201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입학정원의 26%인 총 317명(나균 55명, 다균 262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나균' 일반전형은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항공운항학과, 군사학과(수능성적 70%+면접30%)에서 55명을 선발한다.

'다균' 일반전형 1에서는 항공전자공학과 의 13개 학과와 일반전형 2에서 항공관광학부, 멀티미디어학부(멀티미디어전공, 디지털영상전공), 경호학부, 사회체육학과에서 244명을 모집한다.

체육실적전형의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과는 학생부 30%+면접 30%+체육실적 40%를 반영해 18명을 뽑는다.

정원 외 모집의 경우 △농어촌학생출신자 전형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사회공헌선발전형으로 구분되며 수능70%+학생부30%를 평가해 선발할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반영은 수능 4개 영역(국어, 영어, 수학, 탐구)중 성적이 우수한 3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한다.

탐구영역은 사회·과학탐구영역 가운데 상위 성적 1과목만 반영된다.

수능 A형과 B형 응시에 관계없이 성적을 반영하며 별도의 가산점은 없다.

또한 합격자 중 수능 4개영역 등급의 합이 5이내인 학생을 선발해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와 4년간 도서비를 지원한다.

수능등급의 합이 8이내, 과목별 내신 석차등급의 합이 9이내이면 4년간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입학성적 우수자, 외국어성적 우수자, 특별장학, 학부특성화장학, 국가장학생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4~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또는 모집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군사학과(16.5대 1), 항공운항학과(13.3대 1), 물리치료학과(12.9대 1), 간호학과(8.9대 1) 순이다. 이은진 기자



대구보건대 물리치료과 교수들 지역사회 봉사활동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들이 잇따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대구보건대에 따르면 물리치료과 이재홍 학과장과 이진환 교수는 지역 5개 병원 물리치료사와 함께 지난달 22일 열린 대구별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시민 50여명을 대상으로 테이핑치료, 전기치료,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 봉사활동을 했다.

교수들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복지와 관과 특수학교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재홍 교수와 이진환 교수는 이 학과 봉사 동아리 학생 40여명과 함께 12월 둘째 주 합지노인복지관 산하 학수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통증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재홍 교수와 김기철 교수는 12월 첫 주

대한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봉사와 함께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또 특수학교인 광명학교를 찾아 시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척추 부 정렬 검사 및 운동법교육을 실시했다.

검사 시 이상이 있는 학생들은 보건교사를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해서 정확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리치료과 이재홍 학과장은 "물리치료 자격을 보유한 교수들이 재능기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과 병원 물리치료사들도 동참하고 있어 더 큰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



사회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영남대, 총 12개 'BK21플러스사업' 예비 선정

교육부 중간평가, 5개 사업팀

신규선정 비수도권 사립대 최다

규모, 전국 15위 공학, 자연과학

의·약학, 사회과학 등 전체 학문

분야 대학원 경쟁력 인정 받아

영남대가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플러스사업' 중간평가에서 총 12개 사업단(팀)이 예비 선정되며 비수도권 사립대 중 가장 많은 사업단을 운영하게 됐다. 전국 대학 가운데

서도 15번째로 많은 규모다.

'BK21 플러스사업'은 학문분야별로 우수대학원을 육성하고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7년간 매년 2697억원을 투자, 매년 과학기술분야 1만3000명, 인문사회분야 2500명 등 석·박사급 인제 1만5500여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중간평가 예비결과 발표에 따르면, 영남대는 기존 7개 사업단(팀)이 모두 재선정됐고, 신규 5개 사업팀이 추가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새롭게 선정된 팀은 기후변화 적응 지속가능물산업 인력양성 사업팀, E-CAR(Electrified-CAR) 핵심 전기에너지 기술 인력양성사업팀,

이산화탄소 광전환 연료화를 위한 생체모방 미세반응 시스템 연구팀, 슈퍼 제네릭 개발 맞춤형 창의 인력양성 사업팀, 지역 강소기업 창의 인재 양성팀이다. 공학, 자연과학, 의·약학, 사회과학 등 전 학문분야에서 대학원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노석근 영남대 총장은 "창조경제를 이끌 학문 후속 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돼 무척 기쁘다"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팀은 2020년까지 4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6년 1월까지 연구비, 논문실적

부풀리기 등 학교별로 제출한 자료를 현장 점검해 오는 2월에 최종 선정 여부를 확정한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중간평가는 전면재평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 2013년에 선정된 기존 사업단(팀) 544곳을 평가해 상위 50%에 속한 227개 사업단(팀)을 우선 재선정했다. 하위 50%에 속한 사업단 343개 사업단(팀)과 새로 신청한 479곳을 함께 평가해 이중 269곳을 선정했다. 기존 사업단(팀) 가운데 성과가 현저히 낮은 24곳은 재평가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탈락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544개 사업단(팀)의 22.9%에 해당하는 125곳이 탈락했다. 127개 사업단(팀)은 새로 선정돼 예비 선정된 전체사업단(팀) 가운데 23.3%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운 기자



영진전문대, 일본 대기업을 IT반 졸업예정자 전원 취업

일본IT기업주문반 31명 모두 합격

영진전문대학이 올해도 졸업예정자 전원을 일본 대기업체에 취업시켰다.

지난 24일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해외취업을 목표로 가동한 일본IT기업주문반(컴퓨터정보계열 소속) 재학생 31명 전원이 일본 IT 기업에 모두 합격했다.

세계적 IT 톱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4명, 인터넷쇼핑업인 라쿠텐에 1명, 광학기기 전문

HOYA에 2명 등 일본 내 대기업체에 7명이 합격했다. 또 13명은 상장기업에, 11명은 유망 중소기업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았다.

특히 대학의 일본IT기업주문반은 매년 재학생들을 일본에 취업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IT기업주문반은 2007년 출범한 후 2009년 첫 졸업생 6명을 일본에 취업시켰다.

이들 중 절반인 3명이 세계적인 IT기업인 일본 소프트뱅크에 입사했으며, 그 결과 일본 IT업체들이 대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자유현 기자

금오공대, 재교육형 계약학과 신입·편입생 모집

산업체·자치단체 재직자 대상

금오공과대학교는 사전 협약을 맺은 산업체·자치단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2016학년도 '재교육형 계약학과'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신입생 모집학과는 경영학과, 산업경영공학과다. 편입생 학과는 경영학과, 컴퓨터IT학과, 기계융합공학과, 경영컨설팅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등이다.

컴퓨터정보공학과는 경북도가 보내 고졸 취업자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학과로 등록금 일부를 경북도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은진 기자

금오공대 계약학과는 7개 학부과정과 1개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되며 현재 244명이 재학 중이다.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체 직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모집 기간은 24~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산학교육운영팀(054-478-72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효상(산학협력단장) 교수는 "금오공대는 산업체 재직자 학위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경북지역 중소기업체 재직자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립대, 28일부터 신입생 정시 모집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참여

경북도립대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지난 24일 경북도립대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2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참여를 시작으로 신입생 정시 모집에 나선다.

경북도립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저렴한 등록금과 폭넓은 장학금, 공무원 특성화, 양호한

취업률 등을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IT특과, 건설공간시스템과, 보건미용과 등 12개 학과의 교수 및 조교, 입학담당자가 수험생들에게 1:1 입시상담과 진로상담, 현장 원서 접수 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용대 경북도립대 총장은 "공립대학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계명문화대, 말레이시아 사바주서 봉사활동



재학생들로 구성된 국외봉사단

계명문화대학교는 재학생들로 구성된 국외봉사단이 동계방학을 맞아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재학생들에게 사랑나누기 실천과 다양한 국제경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외봉사단 모두 3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태권도와 미술, 음악, 언어, 컴퓨터, 위생 등 교육봉사와 교실 내·외벽 페인트 작업, 염소집과 울타리작업, 허브나무 심기 등 노력봉사, 해어와 태권도 전수, 한국전통문화 소개, 보건위생 계몽운동 등 문화봉사 등을 실시했다. 또 생활용품, 운동용품, 학용품, 의약품 등 다양한 물품도 지원했다.

봉사활동 지역인 가나안농학교(교장 재판관)에선 아침 점호와 저녁점호, 가나안 정

신과 식탁교육 등 정신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또 지역주민의 집을 방문해 말레이시아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태권도를 전수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한국문화소개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태권도 시범, 격파, K-POP댄스, 합창, 말레이시아 전통춤 배우기 등 문화교류 기회도 가졌다.

가나안 농학교 교장과 교장은 "봉사단원들이 말레이시아에서 흘린 땀의 맺가 다 가을 미래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계명문화대학교의 후원과 단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가나안농학교의 자립 프로젝트인 염소농장, 지렁이집, 허브나무심기는 앞으로 가난한 시골마을을 잘살게 만드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여성 문화

광역일보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12

연예가 소식

전해라 이애란·머슬녀 레이앙 개그콘서트 '호불호' 출연



KBS 2TV '개그콘서트-호불호'에 올해 마지막 게스트로 '짬방스타' 트로트가수 이애란과 '머슬녀' 모델 레이앙이 출연한다.

두 사람은 27일 오후 9시15분 방송되는 '개그콘서트'의 '호불호'에서 개그맨 최효종·이원구·홍현의 '입터도우미'로 나선다.

이들은 지난 16일 녹화에서 각자의 필살기로 짧지만 굵은 존재감을 과시하며 호불호 팬 사이트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이애란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퍼진 '전해라 짬방'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짬방'은 '짬방방지'의 줄임말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렸을 때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전해라'는 이애란의 노래 '백세인생'에서 반복되는 구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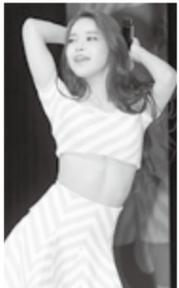
이애란은 호불호 팀의 질문에 '백세인생'을 개사한 제치 있는 노랫말로 답하며 호응을 얻었다. 녹화장에 있던 모두가 '~전해라'는 이애란의 가사를 합창하기도 했다.

레이앙은 탄탄한 몸매로 등장과 동시에 남성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성을 자아냈다. 근육이라는 뜻의 '머슬(muscle)'에서 따온 머슬녀의 상징인 레이앙은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몸매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MBC TV '복면가왕'의 연예인 판정단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그녀는 '호불호' 녹화에서 긴 팔과 다리를 이용, '가입하자, 가입하자!'를 외치며 골반을 빙기는 '통 댄스'를 적극적으로 소화했다.

걸그룹 메인보컬 뭉친다

SBS 'SAF 가요대전'



에이프엑스, 에이핑크, 마마무, 그리노, 에이리. 걸그룹 메인보컬들이 뭉친다. 27일 밤 9시40분 SBS TV '2015 SAF 가요대전'이 생방송된다.

아이돌 그룹 메인 보컬들이 스페셜 무대를 선보인다. 에이프엑스의 루나, 에이핑크의 은지, 마마무의 솔라, 에이리가 함께 공연한다. 샤이니 태민은 유재하의 노래, 엑소의 백현과 첼은 김광석의 노래를 부른다.

MC 아이유는 개인 무대뿐 아니라 혁오 밴드와 콜라보레이션 공연까지 펼친다. 아이린의 컴백 첫 무대도 '2015 SAF 가요대전'에서 볼 수 있다.

백정철 CP는 "과거와 현재, 모든 세대의 음악을 포용하고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스페셜 스테이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장비를 들여왔다. 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태 SBS 예능본부장은 "올해 가요대전 공연장은 PD 생활하면서 본 무대 중 최고"라고 자부했다.

'2015 SAF 가요대전'에는 소녀시대, 윈터 걸스, 샤이니, 2PM, 포미닛, 티아라, 씨엔블루, 인피니트, 에이핑크, B1A4, B.A.P, 에이리, EXID, 비투비, 엑소, 빅스, AOA, GOT7, 마마무, 레드벨벳, 러블리즈, 여자친구, 몬스타엑스, 세븐틴, 업텐션, iKON, 트와이스, 아이유, 혁오밴드 총 29팀이 출연한다.

고성 끝에 나이 읊을 일이다. 현재는 순탄한 행로에 놓여 있을지라도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시밭길을 걷는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7·8·10월생 어제의 믿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 닿을 듯.

실천 없는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시간만 낭비 되는 역효과만 있을 뿐이다. 추진할 일은 과감히 도전해 볼수록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좋은 시기다. 개·양·말띠와 친목을 다질 때 대인관계의 인목을 넓혀줄 듯, 자신감으로 상대를 대하라.

매사에 경거망동하면 주위 친지에게 뜻하지 않는 손해를 줄 듯, 가족 간의 대화로 분위기를 새롭게 하여 화합할 때 사업 또한 길하다. 1·4·6월생 분홍색으로 단정하라. 애정을 부르는 색이니 데이트라도 해보는 건 어떨지.

믿음을 갖는 일의 진행은 더 큰 자부심으로 미루 나가면 큰 성과 있을 듯, 서쪽사람에게 협조를 요한다면 많은 조인을 주면서 금전 또한 원활할 수 있다. 1·4·6월생 어제의 믿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 닿을 듯.

끝없이 찾는 자에게 길이 열릴 듯 사소한 일에 짜증내지 말고 웃음 있는 분위기로 본인인 만드는 일이나 새롭게 연출하여 재능에 사랑을 베풀라. 7·8·10월생 어제의 믿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 닿을 듯.

무소식이 희소식을 알라. 기다림의 인내를 배울 때 동·남간에서 도움 줄 듯, 투지하는 중목의 기대는 오늘보다 내일이 안정이나 금전에 손실이 따르니 투지는 금물. 3·5·9월생 사랑의 화합정신이 필요. 한발 양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모든 일에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마라.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가짐이야말로 막대한 성공을 만들 때 작은 일이 큰일로 발전되지 않는다. 양보하는 마디야말로 고귀한 것이 되기 위한 길임을 알라. 1·4·9월생 애정에는 딱사랑하는 격.

현재 추진하는 일 금전으로 심적 고통이 크나 참고 인내하며 과감히 추진할 때 뿌린 만큼 거둘 수. 관련 일에 신경 쓰다 주관적인 자세가 흔들림 없도록 하라. 상대를 믿는 만큼 한결만 생각하고 자신의 정신을 바로 갖고 버려라.

현재 위치를 뒤돌아보고 새 사업의 구상에 대한 조인을 친구나 친지의 자문을 들으면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소·개·돼지띠와 협력을 이루면 더욱더 힘이 되어 줄 듯. 1·4·6월생 어제의 믿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 닿을 듯.

사업에 승신을 두고 달리는 것도 중요하나 가정에 화목이야말로 모든 것을 단단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울타리를 알아야 할 때다. 가족과 함께 단단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라. 자녀의 탈선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꾸준히 해온 일의 성과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때 기쁜 소식 이어지니 서쪽 사람 잘 꾸미고 듣지 말고 한결만 행하라. 한 우물만으로 성공을 걸면 금전 이득이 엿보인다. 10·11·12월생 푸른색은 상고도 겸손함을 일러라. 힘과 용기를 나타낸.

과거의 일로 연연하는 생각은 자신을 소심하게 만드니 화합을 갖고 출발하라. 새로운 만남과 과감한 시도도 몇 걸음의 좋은 기쁨이 되겠다. 관련된 문제는 조금씩 해결 하라. 손실이 따를 듯 보라색 옷은 진전 없는 애정준해 해결.

구도는 '제각각' 느낌은 '충만'

시각장애인들이 답아낸 사진 전시회

어떤 이들에게 손이 곧 눈이 된다. 따뜻한지 미지근한지 차가운지, 혹은 부드러운지 매끄러운지 거친지 간질간질한지. 이들은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감각을 통해 세상을 본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시각장애인 사진전시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시각장애인 10명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곳곳을 누비며 담아낸 사진전이 오는 28일부터 1월5일까지 상명대 예술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카메라 조작법과 사진이론, 사진 찍는 기술을 배우고 현장 학습을 통해 실력을 길러왔다. 상명대 사진영상미디어학과 학생들이 1대1 멘토로 참가해 매주 사진촬영에 도움을 줬다. 학생들이 피사체의 크기, 색감, 모양과 빛의 위치, 밝기 등등을 설명해주면 시각장애인들이 프레임에 맞추고 사진을 찍는 형식이다.

학생들의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지만 '찾길 이 있고 건너편에 조그만한 건물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크기와 방향을 알기 어렵다. 자동차 소리와 엔진 냄새

등으로 거리와 위치를 추가로 가능하다. 피사체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만져보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하늘거리고 반질반질한 느낌이 들면 사진에도 가볍고 포근한 인상을 반영하려고 멘토에게 노출설정, 화이트밸런스 조정 등을 도와달라 한다.

2년째 사진 교실에 참가한다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박현정(35·여)씨는 이 과정을 두고 "상상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칭했다.

"시각에 문제가 있다보니 처음에는 사진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이란 결국 내 마음 속에서 찾고 싶은 것을 발견하는 거더라구요"

이번에 멘토로 참가한 상명대 사진영상미디어학과 4학년 정수현(26)씨도 비슷한 말을 건넸다. 정씨는 시각장애인 중 한명이 흰색장갑을 끼고 사진을 찍던 일을 인상깊게 기억했다.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해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보인다면 그는 "카메라를 든 손이 눈을 대신하는 것 같아 흰 장갑을 끼고 왔다"고 말했다. 사진에 자신이 보는 세상이 그대로 투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참가자들은 올해 광복 70년을 맞아 독립기념관, 육군사관학교, 서대문 형무소 등을 특별 방문했다. 이들이 찍은 사진은 대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중

은 사진' 기준과는 동떨어져 있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이미지를 곱씹게 만드는 매력에 있다.

독립투사들을 고문한 흔적이 남겨진 서대문형무소는 오른쪽으로 넘어질 듯한 각도로 인해 위태로운 긴장감이 느껴지고, 장충공원의 유관순상은 사선으로 치우친 구도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느껴졌던 극적인 불안감을 자아낸다.

'사진에서 모든 규칙은 깨져야 한다'고 강조하던 유명 사진작가 스티브 맥케리의 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결과물도 남다르지만 이들이 사진을 대하는 자세 역시 일반인들과는 다르다.

"일단 예쁘게 있으면 일반인들은 사진기부터 마구 갖다대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일단 보질 못하니 대상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심스레 다가가죠"

정씨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사진을 신중하게 찍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변화는 박씨에게도 나타났다.

큰 물체 형태만 겨우 파악할 수 있다는 그녀는 제대로 볼 수 없던 사실 때문에 일부러 주변을 외면하거나 피하기 일쑤였다. 벚꽃이 피어도, 노을이 예뻐도 '어차피 제대로 보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이제 사진을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모습을 카



메라로 담기도 하고, 학교 교복도 새삼 돌아보며 일상을 다시 매만지게 됐다.

이 기획을 처음부터 준비한 양종훈 상명대 교수(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가 의도한 바도 이와 마찬가지다. 양 교수는 시각장애인의 문화 예술에 대한 행복추구권에 대해 고민해 보고 장애 구분을 넘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

내년이면 10회를 맞이하는 사진전. 양 교수는 "특별히 UN 본부에서의 전시도 계획중"이라며 "전 세계에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현대 뮤지컬, 이렇게 시적일 수도 있다



'넥스트 투 노멀'

'넥스트 투 노멀(Next To Normal)'은 가장 시(詩)적인 '현대' 뮤지컬이라 할 만하다. 꿈과 환상의 판타지로 통하는 뮤지컬 주인공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어머니라니. 그녀 '다이나나'의 아픔은 '굿맨' 가(家)의 중심에 파리를 틀고 있는 상처와 연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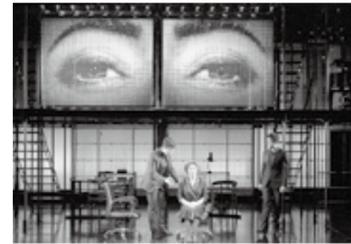
다이나나는 16번째 우울증과 과대망상으로 고통 받고 있다. 과거의 상처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외감을 느끼게 된 딸 '나탈리'는 천재지만, 방황한다. '넥스트 투 노멀'은 굿맨 가정의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현재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그려나간다.

미국의 브라이언 요키(작가)와 톰 킷(작곡가)이 협업한 넘버들은 이 롤러코스터의 탑승권이다. 특이한 심장을 탑재한, 다양한 장르의 넘버들은 무거운 소재에 긴장감과 함께 두근거림을 선사한다. 특히, 이처럼 넘버의 가사가 명확히 들리는 뮤지컬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적인 한국어 번안도 일품이다.

다이나나와 아들 '게이브', 남편 댄이 번갈아 부르는 '넌 몰라'에서 게이브가 "나 나 떠나지 않아 나 아빠도 나를 알아"라고 절규하고, 다이나나가 "오 년 몰라 난 너를 알아"라며 아파하며 댄이 "포기 못해 난 놓을 수 없어"라고 강경할 때, 드라마에 대한 은유와 상징이 넘친다.

나탈리가 '수퍼보이와 투명소녀'에서 "수퍼보이와 못한 투명소녀 철의 아들 허공의 딸 그는 멋진 왕자님, 영웅 난 없어"라며 울분을 토할 때 댄과 나탈리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다.

이 뮤지컬에는 브루스 윌리스 주연 영화 '식스센스'를 연상시키는 '가브리엘'이라는 스포일러가 있다. 이미 2년 만에 돌아와 세번째 시



즌에 돌입한 만큼 스포일러를 노출하자면 가브리엘은 게이브다. 8개월만에 죽은 아들이다. 다이나나에게는 게이브가, 가브리엘이 성장한 모습인 셈이다. 뮤지컬에서도 비교적 초반에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건 막판의 또 다른 반전이다. 밝힐 수 없는 이 부분은 가족 구성원을 위해 자신의 그리움과 고통을 참아야만 하는 힘겨움과 아픔의 결정체다. 이 장면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은 이유다.

3층 짜리 12개 구획으로 나뉜 철제 무대와 2층의 중심을 개폐하는, 눈이 그려진 2개의 미닫이 문은 인물들의 닫혀진 마음과 고독, 벽을 뚫으려는 시도 등의 은유와 상징으로 활용된다. 보랏빛, 푸른빛 조명과 수많은 주황빛 전구가 모여서 내는 거대한 오렌지 빛은 인물들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심리를 반영한다.

결국 이 모든 건 '인간이 아름답다'로 귀결된다. 겉으로는 평범해보이지만, 상처로 점철됐던 가정은 이를 이기기 위해 저마다 맞서고 있었다. 힘들어도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더 정면으로 맞선다. 이 가족의 성은 굿맨(Goodman)이다. 제목 '넥스트 투 노멀(Next To Normal)'은 '평범함, 그 언저리' 정도로 해석된다. 나탈리가 원하는 것이다.

'넥스트투노멀'은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것만이 뮤지컬의 기능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한다. 현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가장 시적인 현대 뮤지컬이라고 단언했다.

2016년 3월13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다이나나 박칼린·정영주, 댄 남경주·이정열, 게이브 최재림·서경수, 나탈리 오소연·전성민·전예지, 헨이 안재영·백현훈, 의사 임현수. 프로듀서 박용호·유주영, 연출 변정주. 러닝타임 140분(인터미션 15분 포함) 최윤희 기자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 '모던타임스'

스타 피아니스트 손열음(29)이 3년 만에 리사이틀을 연다.

공연기획사 크레디아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손열음은 2월27일 오후 8시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모던 타임스'를 펼친다.

손열음은 2011년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상을 휩쓸며 스타덤에 올랐다.

발레리 게르기예프, 로린 마젤, 로렌스 포스터, 드미트리 키타옌코, 유리 바슈넛, 정명훈 등의 지휘로 뉴욕 필하모니, 로테르담 필하모니, 이스라엘 필하모니 등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협업했다.

손열음은 글쓰기에도 소질이 있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클래식 이야기', '하노버에서 온 음악편지' 등의 책을 출간했다.

공연 타이틀에서 엿볼 수 있듯, 이번 프로

그램은 모두 20세기 초반 곡으로 구성된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전쟁에 즈음해 바뀐 시대상을 담은 대표적인 음악으로 1부와 2부로 나뉜다.

특히 첫 곡인 아돌프 슈츠 이블러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주제에 의한 콘서트 아라베스크, 마지막 곡인 모리스 라벨의 '라벨스' 배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라벨스는 전통적인 지난 세대의 비엔나 왈츠를 무너뜨린 21세기 콘서트의 곡이다.

2013년 재기 발랄한 레퍼토리와 자신감 넘치는 연주로 눈길을 끌었던 손열음의 웅장했던 연주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다. 약 100년 전 시대로 돌아간 손열음만의 피아니즘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 공연 전후로 2월19일 화성, 20일 강동, 24일 대전, 25일 창원, 28일 군포, 3월3일 울산, 4일 여수를 돈다. 뉴스

"연말 대의 가족 풍경은 어떤가요?"

서기환 '사람풍경'展

연말연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전시가 충무아트홀에서 열리고 있다.

서기환의 개인전 '사람풍경'전으로, 가족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일상이 동물들과 어우러진 초현실적 화면이 유쾌하다.

남편과 아내, 아가들이 등장하는 그림은 매일 살 부비며 살아가는 가족과의 관계가 사물들과 뒤엉켜 보여져 녹록치 않은 현실을 이야

기한다.

작가는 "가족의 문제에 관심은 갖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이며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기 때문"이라며 "'가족은 바로 나이며 행복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전통 동양화 기법으로 그려진 작품은 비단에 명확한 색감으로 채색돼 정교함이 돋보인다. 작가는 중국 중앙미술학원과 서울대 동양화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뉴스



기성용 1호골 “대단한 크리스마스 선물”



기성용의 골로 스완지 웨스트 브롬에 1-0 승리

박싱데이에 시즌 마수절이 골을 터뜨린 기성용(26·스완지 시티)이 “대단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고 기쁜 심정을 드러냈다.

기성용은 26일 자정(한국시간) 웨일스 스완지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스완지 시티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의 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격했다.

적극적으로 공격에 뛰어든 기성용은 전반 9분 앙헬 라헬의 슈팅이 골키퍼 손을 맞고 흐르자 몸을 던져 골을 골대 안으로 집어 넣었다. 자신의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었다.

기성용은 구단을 통해 “오랜 시간이 걸린 득점이었다. 그만큼 득점에 대해 간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름다운 골은 아니었지만 나에게 의미있는 골이다. 왜냐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어 만들어낸 득점이기 때문”이라

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시즌 첫 골을 넣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다음 경기에서는 더 많은 골을 넣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성용의 골로 스완지는 1-0으로 짜릿한 승리를 챙겼다. 무려 정규리그 8경기 만의 승리였다.

18위에 머물던 스완지는 이번 승리로 강등권(18-20위)도 탈출했다. 4승6무8패(승점 18)로 16위다.

기성용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경기였고 소중한 승점 3점을 얻었다”며 “우리의 시즌은 지금부터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에서 떨어졌던 자신감을 이번 승리로 찾게 됐다”며 “좋은 분위기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믿었다. 우리는 리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한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전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유지해 분위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뉴시스**

“류현진 돌아오는 다저스, 내년시즌도 지구 우승”

ESPN, “다저스 92승70패로 서부 지구 우승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가 4년 연속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건은 류현진(28)이 건강하게 복귀한다는 것이다.

미국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27일(한국시간) “다저스가 92승70패로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SPN은 팬그래프닷컴의 통계를 바탕으로 다음 시즌에 대한 예측을 했다. 올 시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대어급 자유계약선수(FA)들의 영입 전쟁으로 달아올랐다.

다저스는 2선발 요원 잭 그레인키를 지구 3위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내쳤다. 대체자를 몰색했지만 자니 쿠에토와 제프 사마자 영입 경쟁에서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PN은 다저스가 4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고의 투수 클레이튼 커쇼가 건재하다. 브렛 앤더슨과 류현진이 300이닝에 WAR(대체



선수대비 승리기여도) 5.1 이상을 합작할 것이다”면서 “앤더슨과 류현진 모두 건강하다면 훌륭한 투수들이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은 데뷔 후 2시즌 동안 28승15패 평균자책점 3.17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올 시즌을 앞두고 어깨 수술을 받았고 재활에만 매진했다.

ESPN은 또한 “공격은 올 시즌보다 더 많은 점수를 내줄 것이다. 트레이드를 통해 다른 선발투수를 데려 올 가능성도 열려있다. 팬들은 조금씩이지만 여전히 다저스는 지구 최강팀이다”고 했다.

포스트시즌에서 전력을 보강한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는 올 시즌과 마찬가지로 2, 3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다. **뉴시스**

‘축구스타가 만든 웃음 바다’... 홍명보 자선축구대회



‘이승우 결승골’ 안정환 희망팀 최진철 사랑팀에 승리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홍명보 자선축구대회가 27일 열려 성탄절의 따스한 온기를 이어갔다.

홍명보장학재단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주식회사 건영과 함께하는 셰어 더 드림 풋볼 매치 2015(Share the Dream Football Match 2015)’를 개최했다.

홍명보 이사장의 주도 아래 지난 2003년 첫 선을 보인 자선축구대회는 어느덧 13번째 막을 올려 수많은 스포츠팬들이 기다리는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해가 거듭할 수록 노하우가 쌓여 ‘사랑·희망·재미’ 삼박자를 모두 잡았다. 올해는 특히 ‘청년실업 해소’라는 주제를 걸고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재단은 자선경기에서 거둔 수익을 청년실업 해소와 소아암 환자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축구 축제인 만큼 국

내·외 축구스타들이 총출동했다. 최진철 포항 스틸러스 감독이 이끄는 사랑팀과 안정환 MBC 해설위원이 이끄는 희망팀은 화려한 스퀘드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했다.

사랑팀에는 올해 은퇴를 선언한 이천수를 비롯해 박주영(서울), 김보경(마츠모토), 김병지(전남), 이종호, 이근호(이상 전북), 염기훈(수원), 황의조(성남), 정대세(시미즈), 송진형(제주), 서현숙(이천대학교), 이상민(현대고) 등 12명이 포진했다.

이에 맞서는 희망팀에는 구자철, 지동원(이상 아우크스부르크), 박주호(도르트문트), 김진수(호펜하임), 지소연(현시 레이디스), 이승우(바르셀로나) 등 유럽파들과 장현수(광저우부리), 김승규(울산)이 나섰다. 또, 일본 프로야구에서 맹활약 중인 이대은(지바 롯데)과 청춘FC 출신인 염호덕, 임근영과 개그맨 서경석, 청각장애인국가대표 김중훈이 합류해 13명 엔트리를 완성했다.

경기는 전후반 25분씩 5대5 풋살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랑팀은 박주영, 황의조, 김보경, 이근호에

김병지로 뒤를 받치며 공격적인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 희망팀은 지소연, 박주호, 임근영, 염호덕, 김승규를 내보내 이에 맞섰다.

선제골은 사랑팀의 몫이었다. 전반 2분 김보경의 패스를 받은 황의조가 깔끔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이내 희망팀이 임근영, 지소연, 박주호의 연속 득점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득점이 나올 때마다 선수들은 준비한 세리머니를 펼쳐보였고, 경기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선수들 역시 이날 만큼은 긴장감을 잊고 환한 미소를 지은 채 축구 실력을 뽐냈다.

전반전을 4-6으로 뒤진 사랑팀은 후반 시작과 함께 공격에 박차를 가했다. 필드 플레이로 나선 김병지가 후반 9분 골망을 흔들며 경기는 어느새 9-9 동점을 맞이했다.

3분 뒤 노익장 김병지가 재차 득점해 사랑팀이 앞서가자 신에 이승우가 골망을 흔들며 동점을 맞췄다. 전광판의 시간이 줄어들 수록 양팀의 공격도 활발해져 2분여를 앞둔 채 12-12 팽팽한 균형이 만들어졌다.

승부는 극적으로 갈렸다. 경기 종료 27초 남긴 채 희망팀의 이승우가 황의조의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서 깔끔히 골을 성공시킨 이승우는 댄스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13-12 승리를 장식했다.

결승골을 뽑아낸 이승우는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뉴시스**

‘블루랄라 6연승’... OK저축은행, KB손보 3-1완파

마틴, 열번째 트리플크라운 기록

로버트랜드 시몬과 송명근 쌍포가 맹활약한 OK저축은행이 마틴이 트리플크라운을 기록한 KB손해보험을 대접전 끝에 꺾고 6연승을 내달렸다.

OK저축은행은 2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상록체육관에서 열린 KB손해보험과 NH농협 2015-2016 V리그 프로배구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26-24 22-25 30-28 29-27)로 이겼다.

양팀의 용병인 시몬과 마틴이 명불허전의 대결을 펼쳤다. 양 선수는 상대 블로킹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강력한 화력 시범을 펼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이끌었다.

마틴은 이날 개인 통산 열 번째 트리플크라운(서브·블로킹·후위공격 각 3개 이상 성공)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 했으나,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양팀은 1세트부터 박빙의 환관 대결을 펼쳤다. OK저축은행이 서브 에이스로 장군을 두면 KB손해보험은 블로킹으로 명군을 불렀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세트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이날 맹활약을 펼친 마틴이 강력한 후위공격을 펼쳐며 다시 24-23으로 앞서갔으나, 리



그 1위 OK저축은행의 저력은 만만치 않았다.

OK저축은행은 2세트 들어서도 상승 기류를 탔다. 세트 초반 6-0까지 앞서가는 등 일방적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마틴, 김요한 등 쌍포를 앞세워 슬금슬금 점수를 좁혀 나갔다. 김요한은 10-11로 뒤진 상황에서 위력적 오픈 강타로 처음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마틴도 OK저축은행의 추격이 거세던 세트 중반 집중력을 발휘했다. 네트 오른쪽에서 백어택 공격으로 24대 21 세트 포인트를 만든 데 이어, 같은 위치에서 오픈 강타로 세트를 끝냈다.

KB손해보험은 3세트 들어서도 상승세를 살렸다. 이수환이 세트 초반 시몬의 강타를 블로킹으로 저지하며 9-7로 점수를 벌여 나갔다.

하지만 OK저축은행에는 송명근, 시몬 듀오가 있었다. 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먼저 구해낸 것은 송명근.

송명근은 18-21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마틴의 후위공격을 블로킹으로 저지한 데 이어 강력한 오픈 공격으로 점수 차를 20-21로 좁히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심경섭도 승패가 갈리는 고비에서 후위 공격으로 잇달아 두 점을 냈다. 양팀 점수는 23-23. 박원빈이 빼어난 서브 범실을 했으나 송명근이 다시 백어택 공격에 성공하며 24-24 동점을 만들었다.

김세진 감독은 양팀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펼치던 세트 막판 시몬을 다시 투입했다. 그는 수비수들의 리시브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위력적인 강타로 잇달아 점수를 내며 30-28로 세트에 종지부를 찍었다.

마틴은 3세트에서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며 개인통산 열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으나, 세트 패배로 빛이 바랬다.

양팀은 4세트 들어서도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며 명승부를 이어갔다. OK저축은행이 24-23으로 앞선 상황에서 마틴은 강력한 후위공격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시몬과 송명근, 마틴이 어지럽게 난전을 펼치는 등 강력한 화력대결을 하며 승리를 향한 의지를 불태웠다.

마지막에 앞선 팀은 OK저축은행, 송명근은 28-27로 앞선 상황에서 강력한 오픈 공격으로 길고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뉴시스**



삼성생명 스투스가 2일 오후 경기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KDB생명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점프슛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 신한은행 꺾고 4연패 탈출

연장 점전 끝에 70-69로 승리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이 연장 점전 끝에 인천 신한은행을 꺾었다.

삼성생명은 27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과 경기에서 연장 점전 끝에 70-69로 승리했다.

5위 삼성생명(7승10패)은 4연패를 끊어냈다. 4위 청주 국민은행과는 1경기 반 차다. 신한은행을 상대로 올 시즌 첫 승을 거두기도 했다.

외국인 센터 키아 스투스가 21점 17리바운드 드로 괴력을 발휘했다. 패색이 짙던 4쿼터에 신 동점 3점포를 터뜨리며 중흥무진했다. 배혜운(10점)도 연장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연패를 당하게 된 신한은행(9승8패)은 2위

수성이 위태롭게 됐다. 3위 부천 KEB하나은행과 한 경기 차 밖에 나지 않는다.

호니 커리(12점 14리바운드)와 김단비(12점 7리바운드)가 분전했지만 팀 패배로 웃지 못했다.

3쿼터까지는 신한은행이 49-40으로 앞서갔지만 삼성생명은 추격을 포기하지 않았다.

4쿼터 이미선과 배혜운, 박하나 등의 고른 활약으로 차근차근 따라붙은 삼성생명은 종료 4초를 남기고 스투스가 동점 3점슛을 터뜨려 연장으로 경기를 끌고 갔다.

연장에서 시소게임을 펼치던 삼성생명은 종료 38초를 남기고 배혜운의 2점슛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모니커 커리의 턴오버를 틈타 배혜운이 연속득점을 해 70-68로 앞서갔다.

신한은행은 종료 2초를 남기고 김단비가 자유 투 2개를 얻었지만 1개를 놓쳐 패했다. **뉴시스**



2015년 김천시문화상 시상식 가져



교육문화체육-법매 스톱, 사회복지경제-최동원, 지역개발-백계자 등 수상

김천시는 지난 24일 제20회 김천시 문화상 시상식을 시청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으로 교육문화체육, 사회복지경제, 지역개발부문을서 각 1명씩 총 3명이 수상을 했다.

교육문화체육부문 수상자인 법매스님(59)은 시인으로서 서민의 삶과 애환, 시대의 아픔과 치유 등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장달과 김천의 자연과 문화유산 등 향토색 짙은 문학 활동으로 김천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했으며, 유아 교육의 모태인 백련 새마을유아원과 녹야 유치원 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소외계층과 아동들의 교육과 보호에 헌신해왔다.

사회복지경제부문 수상자인 ㈜국제종합관리 최동원(57)대표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활성화로 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했으며, 대곡동 발전협의회 회장으로서 사회봉사-인재육성-환경개선 등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선도 보호와 범죄자 자립 캠프 등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지역개발부문 수상자인 대도중공업(주) 백계자(여, 63)대표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정기 기탁 및 주민과 상생·발전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착한 기업 운영과 연 매출액 100억 달성으로 '2013년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에 선정 되는 등 지역 개발에 크게 노력해 왔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분들이 있기에 김천의 발전은 지속되고 있다"며 "김천시민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행복한 김천, 살기좋은 김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천시문화상은 통합 전까지 각각 김천시민문화상(27명 배출)과 금릉군민상(5명 배출)을 시상해 오던 것을 1995년 시·군 통합 후 '김천시민문화상'으로 명칭을 정해 5개 부문으로 수상해오다 2003년에는 김천시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으로서의 품위를 드높이기 위해 시상부문을 5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이후 2007년 출향인들도 수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김천시 문화상'으로 명칭을 개정해 지난해까지 19회에 걸쳐 6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최규목 기자

신현철 前 SK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울진 명예군민 되다

지역 소상공인 82억원 금융지원



울진군은 지난 22일 군정 발전에 공로가 많은 신현철 前 SK미소금융재단 이사장에게 울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해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신현철 前 SK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은 소외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이 미소금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적이 낮아질 것을 감안하면서도 울진-통영-동해-제주-서산-군산 등 지방 중소도시 위주로 개점했다.

그 중에서도 전국의 SK미소금융 20개 지점 중 군 단위 최초로 울진군에 2개지점을 개설, 울진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82억원의 금융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줬다.

울진명예군민이 된 신현철 前 이사장은 "명예군민증을 준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울진군이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원

함과 동시에 명예군민으로서 금지와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성 기자

경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따뜻한 점심 선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경주시 회원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봉사활동으로 섬김의 나눔을 실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상춘 경북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 및 경주시 회원들은 지난 24일, 경주시 동천동 '무료급식마당 이웃집'에서 점심 배식 등 급식보조 봉사활동으로 경주지역 홀몸노인 등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선물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식사가 끝난 후 식탁 정돈·설거지·잔반처리·식당청소까지 도맡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 날, 봉사활동을 마친 후에는 정기모임을 갖고, 경주지역 신규 회원 확대방안과 내년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며 지역 고액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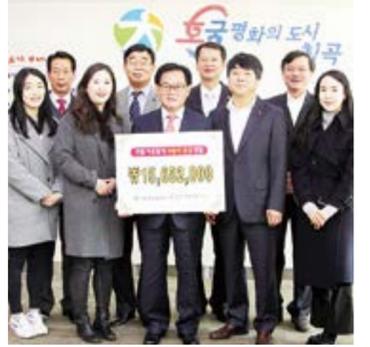
이상춘 회장은 "성탄절을 맞아 주변의 소외 어르신들이 맛있는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돕고, 올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경주시 회원들과 한뜻을 모아 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항상 소외 이웃들을 먼저 배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 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시·군 1아너 갖기'의 일환으로 아직 단 1명의 지역 고액기부자가 탄생하지 않은 김천·영주·상주·군위·청송·영양·영덕·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지역의 사회지도층과 숨은 독자들에게의 소중한 나눔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가입 문의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화 053-980-7812)로 하면 되며 1억원을 일시로 기부하거나, 5년 내 금액을 같은 비율로 나눠 1억원의 기부를 약정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윤용환 기자

LG 디스플레이 노동조합, 연말 이웃사랑 성금 전달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 구미지부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칠곡군에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24일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 채근욱 지부장과 LG디스플레이 구미경영지원담당 신영철 상무는 칠곡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500여만원을 배신기 칠곡군수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 여성부가 지난 4일 칠곡군 석적읍에서 주관한 '행복한 사랑나눔 일일호프'의 수입금이다.

채근욱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 구미지부장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LG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았다"며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기탁 받은 성금을 독거노인, 저소득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할 예정이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이외에도 올 한해 '어르신 건강사진 촬영', '저소득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은진 기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 세대 15억원 지원

저소득 가구 1만 1000세대 지원 월동난방비 10억, 월동생계비 5억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4일 연말을 맞아 도내 에너지빈곤층 등 저소득 1만 1000세대에 월동 난방비와 생계비 15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시·군별 지원 대상자로 추천된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중위소득 80% 이내의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 도내 저소득 가구로, 월동난방비 10억원은 각 세대당 10만원씩 총 1만세대에, 월동생계비 5억원은 각 세대당 50만원씩 총 1000세대에 지원했다.

신현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경제적 어려움 탓에 난방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도내 수급자가정이 최근 경북 전체 인구의 약 4%인 7만세대에 달하는 등 에너지 빈곤층이 매해 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면서, "도민들의 따뜻한 온정으로 마련된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이웃들의 깊은 시름을 덜어주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는 데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구호 아래 '희망2016나눔캠페인'을 전개, 기업 및 도민들의 소중한 나눔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자유현 기자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기탁 줄이어

KT&G상상펀드기금운영위 1천만원 대성기업 대표 최정호 5백만원 영주전문건설협회 장학금 3백만원



재단법인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기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KT&G 영주공장(공장장 김대영)은 경영이념인 '함께 하는 기업'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써 직원들이 자율 기부한 상상펀드 기금으로 운영하는 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에서 '행복한 영주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1000만원의 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했다.

그동안 소외계층에게 장학금, 연탄, 난방유 등 겨울나기 용품을 지원, 이웃사랑과 인재육성을 같이 실천하고 있다.

특히 김대영 공장장은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타 지역에 근무하면서 18년간 영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남다른 영주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인재육성장학금과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영주시지회는 현재 248개업체로 회장 임상규, 부회장 홍성택, 사

무국장 김효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주지역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영주시의 덕분으로 지역 사회에 나눔과 봉사 실천을 위해 기탁하게 됐으며 총 기탁금액은 900만원으로 앞으로도 나눔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성기업(주)는 경북 영주시 영주로 258에서 박관, 합관 및 유사적종관 제조업체로서 1971년 설립돼 대(代)를 이어 45년동안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30년 이상 전통산업을 영위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산업·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업체를 지정하는 '향토뿌리기업'으

로 2013년 선정돼 가업을 승계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기탁한 대표들은 "평소 인재육성에 많은 관심이 있어 장학회를 찾게 됐으며,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길은 우수 인재양성이라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탁할 의사를 전했다.

장국현 이사장은 "평소 장학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장학회가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상기 기자

따뜻한 행복공동체 청도, 이웃사랑 열풍 훈훈

청도군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사랑 열풍이 불고 있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경산청도지사(지사장 최순규)는 청도군에 내복을 전달해왔다. '내복펀드'의 일환으로 나눔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해마다 실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올해도 농어촌공사직원들의 작은 기부를 통해 남녀 내의 총 200벌(시가 220만원 상당)을 구입, 좋은 곳에 전달해 달라는 뜻을 밝혀왔다.

생활개선청도군연합회(회장 박순남)에서도 2014년도에 이어 올해 추운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청도반시축제시 감요리 판매수익금 등으로 마련한 쌀 400kg을 아동복지시설인 '살림의 집'을 비롯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기탁했다.

청도천연염색연구회(회장 김중철) 역시, 청도반시 축제 때 청도감물염색 체험장 등을 운영한 수익금 100만원을 청도군지회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 인재육성장학회에 기탁했다.

평소 청도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이불 등을 전달, 선물을 펼쳐주고 있는 ㈜탐마트 청도점(지점장 이재철)도 변함없이 이불 50채(시가 200만원 상당)를 전달해왔다.

이 밖에도 풍각면 청년회(회장 오창환)에서 라면과 국수(150만원 상당)를 지역 어르신

들의 워터인 경로당에 전달했으며, 각북면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정례) 회원들도 성금을 모아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게 육고기 20세트(100만원 상당)를 전달해왔다.

이승울 청도군은 "먼저, 여러분의 이웃사랑과 나눔에 감사드리며, 작은 관심과 배려로 소외계층이 없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 공동체 청도 구현에 앞으로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용규 기자





익을... 생각한다

■ 차욱환의 세상이야기



차욱환
본지 주필

가깝게 지내는 사람 가운데 재물 복이 많은 부부가 있다. 복주머니를 꿰치고 타고 났는지 산속의 땅을 헐 값에 사 둔 것이 별장지가 돼 목돈이 되는가 하면 증권을 사 둔 것이 몇 배로 불어나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이 돈 복 많은 부부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입주시기에 맞춰 살던 집을 팔았는데 아파트공사가 늦어져 살던 집에 월세를 주고 한 달 더 눌러 있게 됐다.

여기서 이 부부는 또 돈 벌 궁리를 해냈다. 아파트 판 돈을 딱 한 달만 주식으로 굴리자는 것이었다. 남편의 아이디어였는데 부인도 두 말 않고 동의했다고 하니 참 희한한 부부였다. 그 다음은 들으나 마나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팔린 사람이 한둘인가. 그들이 조만간 갯방살이나 나 앓을 것이 희히 내다 보였다. 남들 다 하는 주식을 나도 해 보았지만 그게 허가 받은 도박이나 마찬가지로 보였다는 사람은 있어도 벌었다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었다.

어느 날 집사람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전화선 저쪽의 목소리가 찌릿찌릿 울릴 만큼 커서 주고받는 말이 다 들렸다. 듣자니 주식

결혼비용으로 주식을 사다

을 팔았다는 말 같았다. 그 부인이었다. 목정이 큰 것을 보니 드디어 아파트 날리고 죽네 사네 하게 된 모양이었다.

“어찌 됐는데? 손해는 안 봤나?”, “손해는! 1800만원 남았다!”

저쪽에서 만세라도 부르는 것 같았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강동을 차야 하는데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들었지요? 아파트 판 돈으로 1800만원이나 번거?” 집사람이 전화내용을 읊었다. “우리가 이 집 팔아서 주식할까”, “집도 없이 길거리에 나 앉으려고”, “아무튼 지독하게 복 많은 사람들이다.”

가끔 증권방송을 듣는다. 인터넷 속에서 찾아낸 무료증권방송을 듣고 있으면 연속극 보는 재미보다 훨씬 낫다. 상담역을 맡은 전문가들은 오십대의 노장도 있지만 서른 살 안팎의 생기발랄한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남자 못잖게 젊은 여성들의 활동이 눈부시다.

상금 발랄 영롱한 목소리로 거침없이 쏟아내는 이론과 분석과 판단을 듣고 있으면 종합예술품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자신감이 넘치는 도도한 변설에 매료된 것이다. 자정이 넘은 시각의 재방송에 한 청년이 등장했다. 앞으로 주욱 날아갈 유망주라는 어느 고수의 말을 듣고 일도양단의 기계로 가진 돈을 다 틀어 붓는 소위 ‘몰빵’이란 것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얼어붙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듯 쭈뼛 내려가더니 마침내 5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본전을 건지겠

느냐고 청년이 물었다. 상담하는 전문가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한 종목에 다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나무랐다. 분산투자하되 초보자는 현금도 절반가량 남겨 두어야 한다는 다 아는 말을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원금을 한꺼번에 건질 수는 없으니 반등하면 팔았다가 빠지면 다시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말을 끝낸 전문가가 마음이 안됐던지 더 물을 게 있느냐며 사족을 달았다. 그러자 청년이 기막힌 사연을 털어 놓았다. 사실은 그 돈이 결혼하려고 모아 놓은 것인데 증권으로 좀 불리려다가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냈다. “죄송한데요. 선생님 결혼식이 한 달 남았는데 돈은 날려버렸고... 결혼자금도 건질 수 있도록 좋은 종목 하나만 가르쳐 줄 수 없겠습니까?”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애절했는지 가슴이 띵 막혔다.

전문가가 꿀먹은 벼어리처럼 한참 침묵한 뒤에 말했다. “나중에 전화해 주세요. 신경을 써서 골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재주로 한 달 동안에 돈을 다섯 배로 불린단 말인가. 그럴 재주가 있다면 고수라는 사람 혼자 다 벌어서 63빌딩을 사고 말지.

돈에 눈이 달렸다는 말이 맞다. 돈 돈 한다고 해서 큰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나마 타고난 복을 간수하는 방법이다.

■ 나의제언

즐거운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안전 생활화



김대영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일년 중 겨울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해 소방관이 가장 바쁜 일과를 보내는 요즘, 특히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이 중요한 일과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이 되어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저학년 교육의 기회는 아주 드물었다. 어느 정도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연령이 돼야 안전교육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좀 더 나아가 안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안전을 실천하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겨울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테마로 해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 방문교육을 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순진무구함이 줄어드는 약을 먹는 것과 같이 담당직원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고 있는 듯 하다.

어린이들에게는 사용하는 용어부터 다르다. ‘화재’ 대신 ‘불’, ‘소화기노즐’ 대신 ‘소화기호스’를 비롯해 모든 것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진다. 가능한 한 어린이에게 다가 가려고 서기보다는 앉아서, 불박이 영상장치 보다는 이동용 영상장치, 노트북, 그림책 형태로 눈높이를 맞춘다.

어린이집의 경우 연령대별 교육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 한꺼번에 교육을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다.

외국의 경우 연령대별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정규과정으로 안전을 배우고 자란다고 한다. 우리나라 어린이가 한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지식위주로 교육받는 동안 외국에서는 생활안전을 가르친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자질을 높여 접근하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생활안전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날마다 생활하는 가운데 안전행동이 무엇 인지를 알고 몸에 익혀 생활하는 것만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이 즐거운 시간이었다면 아이는 안전은 즐거운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안전은 중요하고 즐거운 것이라는 기본생각은 나라를 안전하게 만든다.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에 좀 더 집중해 연구하고 투자해야 할 당위성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연재, 어디서, 누가 교육하는가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통일된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며 즐거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오늘도 어린이들은 눈만 뜨면 집밖으로 나간다. 소위 교육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항상 그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몫이 아닐까 생각하며, 소방안전교육 시간만이라도 어린이가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

울릉 일주도로 시원하게 뚫린다

울릉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울릉 일주도로2구간 사업이 착공. 2020년 일주도로 완전개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릉일주도로 2건설공사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의 울릉읍 자동리에서 천북리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현재 추진중인 울릉일주도로 터널공사와 연결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1천552억원을 들여 21.1km의 일주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사업비 34억6천만원을 확보해 착공하게 됐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19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으나, 예정보다 4년 이상 앞당겨졌다고 하니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최상의 선물이다.

울릉 일주도로 구간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낙석, 산사태, 너울성파도, 겨울철 상설결빙 등)로 인해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겨울철 너울성 파도로 인한 교통두절로 통행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조기착공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도는 울릉일주도로 개량구간 21.1km(교량 5개소, 터널 5개소, 피암터널 4개소, 재포장 5.9km,

확포장 6km, 성능개선7.1km)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로 바꾸기 위해 기본설계 심의 및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거쳐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등 개량공사를 앞당기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낙석, 산사태, 너울성파도 등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내수전-섬복간 일주도로 건설공사와 더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두절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지역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됨으로써 본격적인 울릉도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된다.

특히 관광객들의 섬 일주가 한결 편해질 것이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지역의 경제적이득도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울릉군 주민들에게 일주도로 공사는 한이 서린 숙원사업이다. 그만큼 완공시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누리게 될 혜택이 크다. 무려 60년을 넘게 끈 도로사업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울릉 일주도로 개량공사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공수표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반드시 약속대로 개통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시에 천혜의 명승지 울릉도의 자연환경을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더 많은 관심도 아울러 당부한다.

한국관광의 별이 된 영주 ‘무섬마을’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영주시 무섬마을이 관광한대 부문중 ‘숙박’ 분야에서 ‘2015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영주시에서는 소백산자락길(2011년), 선비촌(2012년)에 이어 이번엔 세 번째로 무섬마을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의 별’ 지정으로 명실상부한 관광의 메카로 부상했다.

‘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국내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국의 관광지를 숙박부문 등 10개 부문(생태관광자원, 숙박, 표광, 창조관광자원 등)으로 나눠 선정된다.

그 동안 영주시와 무섬마을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관보존을 위한 문화재 정비, 무섬마을의 역사와 생활·문화 등의 자료 전시관과 숙박 및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및 전통혼례 재현을 위한 전통체험수련관을 운영하고, 자연 문화경관과 연계한 문화생태 체험관광지 조성,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 등을 통한 명품 자전거길, 트래킹 코스 개발 등의 불거리와 무섬골동반, 선비정식 등의 전통 먹거리, 무료 와이파이어서비스 제공 등의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노력해 왔다.

이번엔 선정된 ‘2015한국관광의 별’ 수상을 계기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무

섬마을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섬전통마을 보존회에서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편안한 전통한옥 숙박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전망대 설치, 무섬윤도박물관 조성 등의 새로운 불거리와 주차장 확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에 나섰다.

마을 3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무섬마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놀이 마을이다. 강변의 넓은 백사장과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외나무다리를 중심으로 물과 섬을 잇는 다리처럼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불거리와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천혜의 자원에 인공적인 노력을 가미해 관광 명소화 하는데 성공한 본보기다.

무섬마을의 40여 채 전통가옥과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영주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한번 다녀 간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 가는 관광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넉넉한 인심과 오묘조밀한 불거리, 토속적인 먹거리로 며칠씩 머무는 관광명소로 명성을 쌓기 바란다.

강한 신문 **광역일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대표 김성용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욱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과 053-267-5000 광고과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8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회부 053-253-0060 지법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 오남용 당신의 삶이 어긋납니다

의약품 오남용은 당신의 건강을 잃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올바른 구입과 사용에서 시작됩니다.

어긋난 약물 사용
NO!

금지된 인터넷 구입
NO!

잘못된 마약 사용
NO!

* 모든 의약품의 인터넷판매는 불법입니다.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 후 인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아이의 미소에 예주 천년이 다시 웃는다 주간 예주신문



광역일보 자매지

대구광역일보가
2016년 창간 20주년을 맞아
1월 11일 주간신문

예주신문

힘차게 태동합니다.

예주신문은
매주 월요일

독자결의로 찾아갑니다

예주신문과 함께 일할 영덕 울진 영양 봉화지역 프리랜서 기자를 모집합니다.

우편접수 :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경영관리국 (053) 253-0000, (053) 257-0000